

제4편

부 록

686	1. 2022 군정일지
692	2. 역대 군수(구청장) 명단
694	3. 울주군의회 의원 명단
695	4. 역대 부군수(부구청장) 명단
696	5. 간부공무원 명단
698	6. 행정기구표
700	7. 읍·면 자연마을 현황
701	8.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702	9. 언론보도

2022 군정일지

일 자		주 요 행 사 및 시 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1.	3	시무식	군청 알프스홀	총 무 과
	4.	울주군 새싹삼 스마트팜 현판식	두동면 일원	6차산업추진단
	6.	2022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무위탁 협약식	군수실	지역경제과
	7.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	군청 문수홀	환경자원과
	11.	2022년 1월 정기인사 임용장 교부식	군청 이화홀	총 무 과
	13.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식	군청 문수홀	지역경제과
	15.	울주군 온양테니스장 개장식	온양읍 일원	문화체육과
	20.	2022년 이장협의회 정기총회	군청 이화홀	주민소통실
	24.	2022년 새마을운동 울주군지회 정기총회	군청 이화홀	주민소통실
2.	9. ~ 21.	제20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개최	울주군의회 회의실	기획예산실
	10.	2021년 공간다듬이 성과 보고회 및 2022년 업무협약식	군청 이화홀	토지정보과
	10. ~ 11.	국가예산확보 및 공모사업 활성화 워크숍	군청 문수홀	기획예산실
	22.	보육정책위원회	군청 이화홀	여성가족과
3.	2.	제31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개최	군청 이화홀	총 무 과
	3.	2022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선정 MOU 체결식	군수실	관 광 과
	4.	2022년 제1회 기업지원위원회 개최	군청 비둘기홀	지역경제과
	5.	2022년 언양향교 춘계 석전제	언양향교	문화체육과
	21	남부청소년수련관 개관식 추진	남부청소년수련관	여성가족과
	22	제77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웅촌면 일원	산림공원과
	28.	울주민속박물관 실감 콘텐츠 체험존 개막식 개최	울주민속박물관	관 광 과

일 자		주 요 행 사 및 시 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4	1.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센터 개소	복합웰컴센터 내	관 광 과
	1. ~ 10.	「제7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최	복합웰컴센터, 별빛·등억야영장	문화체육과
	2.	언양 4.2만세운동 재현 행사	언양읍행정복지센터 광장	복지정책과
	5.	울산산업고등학교 그린스마트팜과 현장 방문	울산산업고등학교	6차산업추진단
	7.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계획 회의	군청 재난안전상황실	안전총괄과
	8.	남창 4.8만세운동 재현 행사(추념식)	남창시장 일원	복지정책과
	14.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 기공식	범서읍 일원	시설지원과
5.	5.	제100주년 울주군 어린이날 큰잔치	관내 일원	여성가족과
	10.	방사능재난 대응 훈련시스템 구축 최종보고회	군청 비둘기홀	에너지정책과
	12.	KTX 역세권 인도교 기공식	하평공원	도로과
	14.	작가 오영수 선생 제43주기 추모행사	오영수문학관 야외무대	문화체육과
	14. ~ 15.	울주군협회장기 탁구대회	울주군민체육관	문화체육과
	17.	대북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웅촌면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건설과
	19.	제1회 울주군체육회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	웅촌운동장	문화체육과
	22.	제12회 울주군수기 OB축구대회	작천정운동장, 상북면민운동장	문화체육과
	27.	2022년 정부혁신 교육「사람책 도서관」	군청 문수홀	기획예산실
	27. ~ 29.	「2022 제11회 울산반구대 산골영화제」	작천정 다목적 광장	문화체육과
6.	6.	상북 6.25참전 순국용사 위령제(추모제)	상북면민운동장	복지정책과
	6.	국가유공4형제 전사자 합동추모제	충효정	복지정책과
	8.	무공수훈자회 선망(先亡) 회원 추모제	무공전공비	복지정책과
	9.	6.25참전용사 추모제	6.25 참전기념비	복지정책과
	13. ~ 17.	2022년 화랑훈련 실시	충무상황실	총 무 과
	16.	제3회 기업지원위원회	군청 비둘기홀	지역경제과
	18. ~ 19.	우시산국 축제	웅촌 초천리 회야강 일원	문화체육과
	25.	「제25회 시민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울산 내 각 종목별 경기장	문화체육과

일 자		주 요 행 사 및 시 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7.	1.	2022 진하해수욕장 개장식	진하해수욕장 일원	문화체육과
	2. ~ 3.	제8회 울주군수기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영남알프스 클라이밍장	문화체육과
	5.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발대식 개최	군청 문수홀	문화체육과
	6.	평생학습동아리 워크숍	온양 발리정원	인재교육과
	9.	제31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개최	울주군민체육관	총 무 과
	12. ~ 18.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국별 보고회	군수실	기획예산실
	17.	제10회 울주군수기 줄넘기대회	선바위 주차장	문화체육과
	19.	아동·청소년 찾아가는 대학생 멘토링 수료식 개최	군수실	여성가족과
	22.	제23회 울주군수기 탁구대회	울주군민체육관	문화체육과
	30.	「2022 울주 간절곶 오딧세이」	유니스트 경동홀	문화체육과
8.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주군협의회 위원 위촉식	군청 문수홀	주민소통실
	3.	울주군 이장협의회 월례회의	군청 이화홀	주민소통실
	5.	2022년 울주진하해변축제 개최	진하해수욕장	관 광 과
	6. ~ 7.	「2022 울산서머페스티벌」 개최	진하해수욕장	문화체육과
	8.	울주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정례회의	군청 비둘기홀	주민소통실
	8.	새마을운동 울주군지회 사랑의 쌀 기부 전달식	군청 1층 앞마당	주민소통실
	8.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군청 비둘기홀	일자리정책과
	10.	전자매뉴얼&디지털상황판 및 전산도구개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군수실	에너지정책과
	10.	군수공약실천계획 수립 주민배심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군청 문수홀	기획예산실
	13.	「진하해수욕장 해뜨미 씨름단과 함께하는 울주장사를 찾아라!」 개최	진하해수욕장 일원	문화체육과
	16.	제4차 환경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군청 비둘기홀	환경자원과
	18.	2022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군청 비둘기홀	총 무 과
	19.	2022년 상반기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	군청 비둘기홀	여성가족과
	20.	「2022 간절곶 해오름 가요제」 개최	간절곶 시계탑 광장	문화체육과
	26. ~ 28.	「2022 울주해양레포츠 대축전」	울주해양레포츠센터 앞 특설무대	문화체육과
	27.	「2022 범서 선바위 하하페스티벌」 개최	선바위공원	문화체육과
	29.	제31회 울주군민상 심사위원회(2차) 개최	군청 이화홀	총 무 과

일 자		주 요 행 사 및 시 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9.	1. ~ 2.	2022년「울산재즈페스티벌」	울주문화예술관	문화체육과
	2.	천상도서관 별관 개관식 및 북콘서트	천상도서관	도서관과
	2. ~ 16.	민선 8기 2022년「주민과의 대화」	12개 읍면	주민소통실
	5. ~ 6.	제23회 울주군 이장 한마음 전진대회	화랑체육공원	주민소통실
	15.	옥외 디지털 홍보시스템 구축 제안서 평가위원회	군청 비둘기홀	회계정보과
	16.	울주세계산악영화제「옴프의 가을극장」	온산읍 덕신소공원	문화체육과
	16. ~ 17.	2022년 간절곶 동요제	간절곶 잔디광장	문화체육과
	18.	제6회 서울주 산업단지 화합의날 행사	상북면민 운동장	지역경제과
	20.	군수님 스마트팜 창업 농가 현장 방문	범서, 두동 일원 스마트팜 농가	6차산업추진단
	23.	울산 전국(장애인)체전 기념 콘서트 <함께 뛰는 우리>	울주군청 잔디광장	울주문화재단
	24.	제31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두서 화랑체육공원	총무과
	28.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용역』최종보고회	군청 비둘기홀	일자리정책과
	29.	제16회 울주군 주민자치위원 화합의 한마당 대회	작천정운동장	주민소통실
	30.	2022 “웰컴투옹기마을” 울산옹기축제	외고산 옹기마을 일원	관 광 과
10.	1.	2022년 울주군 청소년의 달 행사 실시	옹기마을 야외무대	여성가족과
	4. ~ 12.	민선 8기 2022년「주민과의 대화」	12개 읍면	주민소통실
	5.	제1회 울주 농산물 직거래 야시장	범서읍생활체육공원	주민소통실
	6.	제1회 “울주에서 백두를 잇다” 제막식 및 평화통일음악회	간절곶 해맞이공원	주민소통실
	8.	2022년 울주금융생활학교 특강	군청 문수홀	일자리정책과
	7. ~ 13.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울산종합운동장	문화체육과
	8. ~ 9.	2022 하반기 영남알프스 힐링음악회 개최	복합웰컴센터 야외광장	관광과
	12. ~ 13.	간부공무원(5급이상)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군청 문수홀	여성가족과
	19. ~ 24.	제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울산종합운동장, 동천체육관	문화체육과
	15.	행복울주 구현을 위한 군민 원탁토론회 개최	군청 문수홀	기획예산실
	15.	대학입시 전략설명회 및 학부모 특강 개최	군청 알프스홀	인재교육과
	15.	「2022년 전국 직장인&동호인 밴드 페스티벌」	청량운동장	문화체육과
	20.	울주군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인권교육	군청 문수홀	주민소통실
	22.	「2022년 전국만화페스티벌」 개최	울산들꽃학습원	문화체육과

일 자		주 요 행 사 및 시 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10.	22.	온산읍민·공단 한마음축제 개최	온산운동장	지역경제과
	26.	2022년 공직자 청렴콘서트	군청 알프스홀	주민소통실
	27. ~ 30.	2022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 대회 개최	영남알프스	관광과
	30.	제19회 울주군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	작천정운동장	주민소통실
11.	2.	『2023년~2026년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군청 비둘기홀	일자리정책과
	7. ~ 13.	2022 울주천하장사씨름대회	작천정운동장 특설무대	문화체육과
	8.	2022 자활한마당 행사	울산대공원 동문 옥외공연장	노인장애인과
	10.~ 11.	전직원 4대폭력 예방교육	군청 알프스홀	여성가족과
	12.	울주유스&울주청소년오케스트라 연합 정기연주회」	서울주문화센터	문화체육과
	12.	2022년 제10회 울주복지박람회	범서생활체육공원	복지정책과
	15.	제7회 어울림한마당 행사	울주군민체육관	노인장애인과
	17.	바르게살기운동 공동체식 함양운동 및 다짐대회	삼동면민체육관	주민소통실
	19.	울주군 평생학습체험대전	범서생활체육공원	인재교육과
	20.	제14회 영남알프스 전국MTB챌린지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광장	문화체육과
	23.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 수련대회	울주군민체육관	주민소통실
	23.	울주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울주문화예술회관	문화체육과
	24.	2022년 울주군 후계농업경영인 전진대회	삼동면민운동장	농업정책과
	24.	제13회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군청 알프스홀, 군청 문수홀	주민소통실
	26.	2022년 울주군 가족센터 성과보고회	울주군 가족센터	여성가족과
	26.	한국자유총연맹 국리민복 실천 결의대회	삼동면민체육관	주민소통실
	26.	2022 영남알프스 완등인의 날 행사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광과
	30.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해도지 F&B 공장	여성가족과
	30.	하우스콘서트<에메트 앙상블>	울주문화예술회관	울주문화재단

일 자		주 요 행 사 및 시 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12.	3.	「2022년 울주군 자원봉사 대축제」	군청 알프스홀	복지정책과
	4.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공감토크 및 문화탐방	경주시 일원	주민소통실
	6.	울주군 독립만세운동사 책자 발간 용역 최종보고회	군청 비둘기홀	복지정책과
	9.	「2022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보육인의 밤」	더엠컨벤션 9층	여성가족과
	9.	2022 울주 스마트팜 네트워크 포럼	군청 문수홀	6차산업추진단
	10.	2022년 청년활동 성과공유회 개최	군청 문수홀	일자리정책과
	10. ~ 11.	「울주트리문화축제」 점등식	웅기마을 입구	문화체육과
	13.	「2022 울산웅기축제」 결과보고회	군청 은행나무홀	관광과
	13.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	군청 알프스홀	복지정책과
	15	울주군 기관단체장협의회	군청 이화홀	총무과
	20.	「2022년 울주군 롯데 희망 장학금」 전달식	군수실	복지정책과
	20.	(주)뉴캐스트인더스트리 마스크 15만장 기부 전달식	군수실	노인장애인과
	28.	2022 울주군 체육인의 밤 및 유공자 시상개최	더엠컨벤션	문화체육과
	28.	울주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울주문화예술회관	문화체육과
	30.	2022년 종무식 개최	군청 알프스홀	총무과
	31. ~ 1. 1.	2023 간절곶 해맞이 행사	간절곶 공원 일원	울주문화재단

2

역대 군수(구청장) 명단

대 순	성 명	부임년월일	전임년월일	재직기간
1	최 동 용	1945. 10. 24.	1946. 11. 17.	1년
2	유 태 경	1946. 11. 18.	1947. 3. 31.	4월
3	오 주 석	1947. 4. 1.	1949. 6. 20.	2년 2월
4	이 박 규	1949. 6. 21.	1950. 5. 5.	10월
5	박 재 현	1950. 5. 6.	1950. 7. 22.	2월
6	강 병 수	1950. 7. 23.	1951. 8. 31.	1년 1월
7	이 희 득	1951. 10. 5.	1953. 1. 5.	1년 3월
8	김 인 제	1953. 1. 6.	1953. 7. 6.	6월
9	이 백 순	1953. 7. 7.	1954. 12. 1.	1년 4월
10	김 극 수	1954. 12. 2.	1956. 11. 5.	1년 11월
11	장 병 구	1956. 11. 6.	1957. 4. 28.	6월
12	서 석 지	1957. 5. 30.	1958. 3. 14.	9월
13	조 창 제	1958. 3. 15.	1960. 5. 24.	2년 2월
14	윤 덕 병	1960. 5. 25.	1960. 9. 13.	1년 3월
15	정 명 철	1960. 11. 29.	1961. 6. 17.	7월
16	김 철 년	1961. 6. 18.	1962. 11. 11.	1년 4월
17	김 현 규	1962. 11. 12.	1964. 1. 31.	1년 2월
18	김 종 구	1964. 2. 1.	1965. 3. 31.	1년 2월
19	이 진 섭	1965. 4. 1.	1966. 9. 30.	1년 6월
20	이 태 수	1966. 10. 1.	1968. 4. 28.	1년 7월
21	한 형 구	1968. 5. 1.	1971. 8. 20.	3년 3월
22	박 용 범	1971. 8. 21.	1973. 6. 30.	1년 10월
23	한 영 규	1973. 7. 1.	1974. 4. 22.	9월
24	한 형 구	1974. 4. 23.	1974. 12. 31.	8월
25	황 길 태	1975. 1. 1.	1976. 3. 30.	1년 3월

대 순	성 명	부임년월일	전임년월일	재직기간
26	김 영 환	1976. 4. 1.	1978. 8. 1.	2년 4월
27	조 상 래	1978. 8. 2.	1979. 10. 15.	1년 2월
28	조 규 섭	1979. 10. 16.	1980. 3. 16.	5월
29	황 대 영	1980. 3. 17.	1981. 12. 22.	1년 9월
30	박 필 용	1981. 12. 23.	1983. 4. 13.	1년 3월
31	손 태 병	1983. 4. 14.	1985. 3. 10.	1년 11월
32	김 중 학	1985. 3. 11.	1986. 2. 27.	11월
33	박 지 근	1986. 3. 8.	1988. 6. 10.	2년 3월
34	이 승 관	1988. 6. 11.	1989. 12. 26.	1년 6월
35	김 명 규	1989. 12. 27.	1992. 4. 22.	1년 4월
36	김 진 백	1992. 4. 23.	1993. 3. 28.	11월
37	황 기 준	1993. 3. 29.	1993. 12. 20.	9월
38	김 수 영	1994. 1. 3.	1994. 12. 31.	1년

울주구청장 및 군수

대 순	성 명	부임년월일	전임년월일	재직기간
1	배 경 석	1995. 1. 1.	1996. 3. 1.	1년 2월
2	손 달 인	1996. 3. 2.	1997. 6. 30.	1년 4월
군수직무대행	허 선 호	1997. 7. 15.	1998. 6. 30.	1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선군수

대 순	성 명	부임년월일	전임년월일	재직기간
초대민선군수	박 진 구	1998. 7. 1.	2002. 6. 30.	4년
민선2대 군수	엄 창 섭	2002. 7. 1.	2006. 6. 30.	4년
민선3대 군수	엄 창 섭	2006. 7. 1.	2008. 9. 25.	2년 3월
민선4대 군수	신 장 열	2008. 10. 30.	2010. 6. 30.	1년 8월
민선5대 군수	신 장 열	2010. 7. 1.	2014. 6. 30.	4년
민선6대 군수	신 장 열	2014. 7. 1.	2018. 6. 30.	4년
민선7대 군수	이 선 호	2018. 7. 1.	2022. 6. 30.	4년
민선8대 군수	이 순 결	2022. 7. 1.	현재	-

3

울주군의회 의원명단

의원		선거구
구분	성명	
의장	김영철	나 선거구
부의장	박기홍	다 선거구
의회운영위원장	한성환	가 선거구
행정복지위원장	김상용	가 선거구
경제건설위원장	정우식	나 선거구
의원	최길영	가 선거구
의원	김시욱	다 선거구
의원	이상결	가 선거구
의원	이상우	나 선거구
의원	노미경	비례대표

※ 가 선거구 : 온산, 온양, 청량, 서생, 웅촌 | 나 선거구 : 언양, 삼남, 두동, 두서, 상북, 삼동 | 다 선거구 : 범서

4

역대 부군수(부구청장) 명단

대 순	성 명	부임년월일	전임년월일	재직기간	비 고
1	허 완	1975. 1. 10.	1976. 3. 31.	2년 3월	
2	김 형 기	1976. 4. 1.	1978. 5. 19.	2년 2월	
3	정 임 준	1978. 5. 20.	1981. 9. 30.	3년 4월	
4	최 상 향	1981. 10. 1.	1982. 11. 3.	1년 1월	
5	김 은 석	1982. 11. 4.	1987. 9. 22.	4년 10월	
6	김 태 일	1987. 9. 23.	1991. 9. 30.	4년	
7	윤 종 진	1991. 10. 1.	1993. 6. 18.	1년 9월	
8	장 병 한	1993. 6. 19.	1994. 9. 30.	1년 3월	
9	서 진 철	1994. 10. 17.	1994. 12. 31.	2월	
10	한 용 규	1995. 1. 1.	1995. 1. 24.	1월	부구청장
11	김 장 옥	1995. 1. 25.	1995. 7. 24.	6월	"
12	이 수 길	1995. 8. 4.	1997. 1. 28.	1년 6월	"
13	이 철 호	1997. 1. 29.	1997. 7. 14.	6월	"
14	허 선 호	1997. 7. 15.	1998. 9. 25.	1년 2월	군수직무대행 '97. 7. 15. ~ '98. 6. 30.
15	유 병 래	1998. 9. 26.	2000. 1. 23.	1년 4월	
16	심 부 용	2000. 1. 24.	2001. 1. 8.	1년	
17	최 문 규	2001. 1. 9.	2002. 7. 30.	1년 7월	
18	유 병 래	2002. 8. 1.	2003. 7. 7.	11월	
19	허 종 생	2003. 7. 8.	2005. 1. 26.	1년 7월	
20	이 성 섭	2005. 1. 27.	2005. 12. 31.	1년	
21	이 선 범	2006. 1. 12.	2007. 6. 29.	1년 6월	
22	신 장 열	2007. 7. 20.	2008. 9. 30.	1년 2월	
23	박 정 식	2008. 10. 2.	2009. 12. 31.	1년 2월	
24	이 효 재	2010. 1. 8.	2011. 1. 31.	1년	
25	허 만 영	2011. 2. 2.	2012. 7. 2.	1년 5월	
26	전 병 수	2012. 7. 3.	2013. 6. 30.	1년	
27	한 진 규	2013. 7. 3.	2015. 12. 31.	1년 6월	
28	장 한 연	2016. 1. 1.	2016. 12. 31.	1년	
29	이 경 결	2017. 1. 1.	2017. 12. 31.	1년	
30	조 한 희	2018. 1. 1.	2019. 1. 3.	1년	
31	김 지 태	2019. 1. 4.	2019. 12. 31.	1년	
32	서 석 광	2020. 1. 1.	2021. 6. 30.	1년 6월	
33	강 윤 구	2021. 7. 1.	2022. 12. 31.	1년 6월	

5

간부공무원 명단

본 청

직 위		직 급	성 명	보직일자
군 수		정 무 직	이 순 결	2022. 7. 1.
부 군 수		지방부이사관	강 윤 구	2021. 7. 1.
행정문화국장		지방서기관	박 진 영	2022. 7. 21.
복지교육국장		지방서기관	김 효 준	2022. 7. 21.
경제산업국장		지방서기관	김 용 완	2022. 7. 21.
안전환경국장		지방서기관	박 공 열	2022. 7. 21.
도시건설국장		지방기술서기관	홍 승 진	2022. 7. 21.
기획예산실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득 선	2022. 1. 1.
주민소통실장		지방행정사무관	안 지 연	2022. 7. 21.
행정문화국	총무과	지방행정사무관	김 미 혜	2022. 7. 21.
	문화체육과	지방행정사무관	진 병 석	2022. 1. 1.
	관광과	지방행정사무관	김 연 희	2021. 1. 1.
	회계정보과	지방행정사무관	김 현 영	2022. 7. 21.
	세무1과	지방행정사무관	김 갑 렬	2022. 7. 21.
	세무2과	지방행정사무관	황 인 숙	2022. 7. 21.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방행정사무관	임 명 희	2022. 1. 1.
	노인장애인과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김 미 화	2021. 2. 22.
	여성가족과	지방행정사무관	문 지 영	2021. 7. 1.
	인재교육과	지방행정사무관	홍 경 숙	2022. 1. 1.
	도서관과	지방행정사무관	김 윤 하	2022. 7. 21.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지방행정사무관	백 진 백	2022. 7. 21.
	일자리정책과	지방행정사무관	박 은 경	2022. 1. 1.
	에너지정책과	지방행정사무관	이 형 석	2022. 7. 21.
	농업정책과	지방농업사무관	류 남 호	2020. 1. 1.
	축수산과	지방농업사무관	탁 건 우	2022. 1. 6.
	6차산업추진단	지방농업사무관	장 명 기	2021. 7. 1.
안전환경국	안전총괄과	지방행정사무관	이 영 수	2021. 1. 1.
	환경자원과	지방환경사무관	박 주 행	2022. 1. 6.
	산림공원과	지방녹지사무관	배 도 권	2022. 7. 21.
	토지정보과	지방시설사무관	박 창 숙	2020. 1. 1.
	위생과	지방행정사무관	박 은 경	2022. 7. 21.

직 위		직 급	성 명	보직일자
도 시 건 설 국	도시과	지방시설사무관	신 원 삼	2021. 1. 6.
	건설과	지방행정사무관	차 을 수	2022. 1. 6.
	도로과	지방시설사무관	여 종 석	2022. 1. 6.
	교통정책과	지방행정사무관	최 자 애	2022. 1. 1.
	건축과	지방시설사무관	김 태 현	2021. 7. 1.
	시설지원과	지방시설사무관	김 정 임	2021. 1. 6.
	도시개발추진단	지방시설사무관	표 용 규	2021. 1. 6.

보건소

직 위	직 급	성 명	보직일자
보 건 소 장	지방기술서기관	문 숙 희	2021. 7. 1.
보 건 과 장	지방간호사무관	차 명 옥	2021. 7. 1.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이 종 희	2020. 7. 3.

읍·면

직 위	직 급	성 명	보직일자
범 서 읍 장	지방서기관	박 경 례	2022. 7. 21.
범서읍 민원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최 명 선	2022. 7. 21.
범서읍 생활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상 윤	2022. 7. 21.
온 산 읍 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동 원	2021. 1. 1.
언 양 읍 장	지방행정사무관	배 인 기	2022. 7. 21.
온 양 읍 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상 민	2021. 3. 3.
청 량 읍 장	지방행정사무관	조 윤 영	2022. 7. 21.
삼 남 읍 장	지방행정사무관	주 보 령	2021. 7. 1.
서 생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준 호	2022. 1. 1.
웅 촌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	제 순 경	2021. 7. 1.
두 동 면 장	지방농업사무관	김 순 천	2022. 1. 6.
두 서 면 장	지방농업사무관	김 혁 관	2022. 1. 6.
상 북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	윤 순 옥	2022. 1. 1.
삼 동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	전 순 이	2022. 7. 21.

의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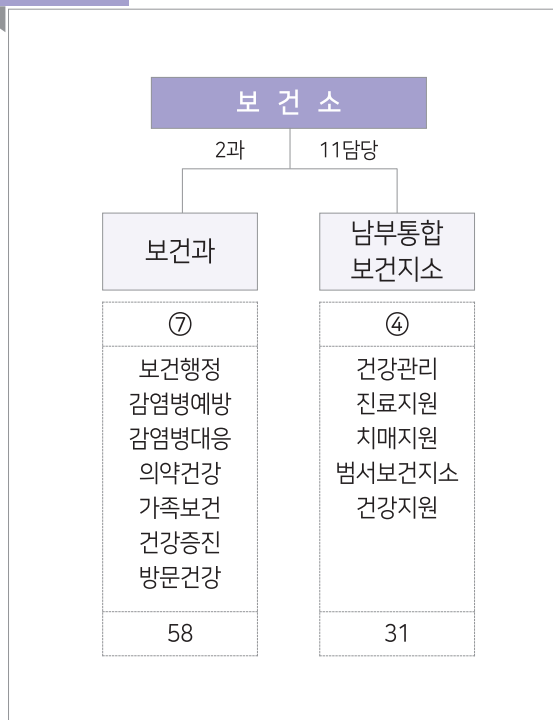
직 위	직 급	성 명	보직일자
의회사무국장	지방서기관	김 갑 식	2022. 1. 1.
전 문 위 원	지방행정사무관	최 병 수	2022. 1. 1.
전 문 위 원	지방행정사무관	김 미 옥	2022. 1. 1.
전 문 위 원	지방행정주사	김 희 숙	2022. 1. 12.

행정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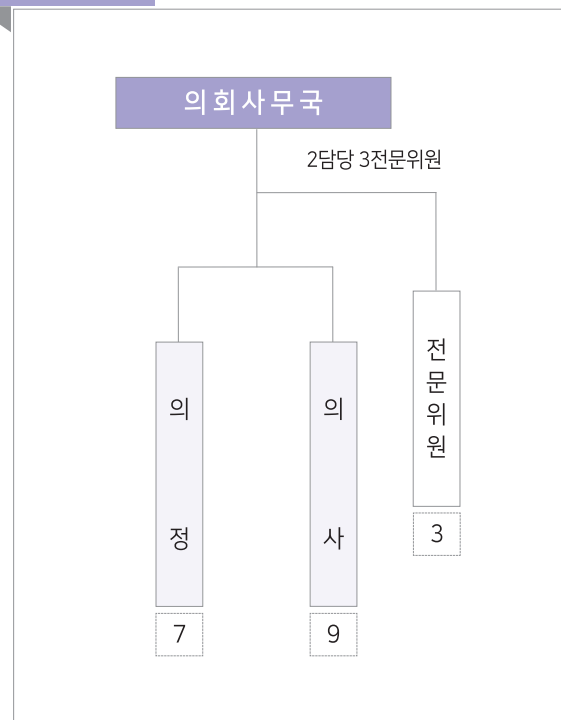
읍·면 : 64담당 / 249명

읍면	계	범서	온산	언양	온양	청량	삼남	서생	웅촌	두동	두서	상북	삼동
담당	64	8	6	6	6	6	6	5	5	4	4	5	3
정원	249	39	25	26	24	21	21	18	17	14	14	17	13

직속기관



의회사무국



읍·면 자연마을 현황

22.12.31.기준

읍면별	면적 (km)	가 구	인 구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수)	법 정 리 명
6읍 6면	758.37	100,126	221,511	118 (380)	462 (2,095)	
범서읍	77.07	25,193	68,677	10 (69)	62 (623)	사연, 천상, 입암, 굴화, 서사, 두산, 구영, 중리, 망성, 척과
온산읍	40.69	11,055	20,395	13 (38)	14 (138)	화산, 삼평, 강양, 우봉, 당월, 처용, 산암, 대정, 방도, 이진, 원산, 덕신, 학남
연양읍	68.72	13,085	29,541	15 (44)	43 (309)	반송, 반천, 반곡, 어음, 송대, 평리, 다개, 대곡, 직동, 동부, 서부, 남부, 반연, 태기, 구수
온양읍	64.28	12,308	28,358	10 (43)	47 (276)	발리, 대안, 망양, 남창, 동상, 삼광, 내광, 외광, 운화, 고산
청량읍	59.95	8,373	18,844	9 (32)	48 (213)	덕하, 동천, 상남, 개곡, 중리, 문죽, 삼정, 율리, 용암
삼남읍	31.01	11,614	22,516	5 (35)	37 (170)	교동, 상천, 신화, 방기, 가천
서생면	36.88	4,622	8,499	10 (22)	25 (77)	신암, 명산, 나사, 화산, 대송, 용리, 서생, 진하, 화정, 위양
웅촌면	51.65	4,281	7,700	9 (27)	27 (92)	초천, 석천, 곡천, 검단, 은현, 고연, 대대, 통천, 대북
두동면	63.33	2,446	4,287	8 (15)	33 (42)	만화, 구미, 월평, 삼정, 이전, 봉계, 천전, 은편
두서면	78.86	1,887	3,057	9 (17)	40 (42)	차리, 구량, 복안, 미호, 활천, 내와, 전읍, 인보, 서하
상북면	123.58	4,229	7,898	13 (22)	58 (88)	지내, 양등, 산전, 길천, 이천, 덕현, 명촌, 천전, 거리, 궁근정, 향산, 소호, 등억알프스
삼동면	62.35	1,035	1,740	7 (16)	28 (25)	둔기, 조일, 출강, 작동, 보은, 하잠, 금곡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 도시

구 분	외국도시명	체결일자	교류종류
자매결연	미국 아이오와주 시더레피즈시	1987. 8. 19.	자매결연
	전라남도 여수시	2009. 10. 29.	자매결연
	중국 무석시 회시산구	2019. 4. 9.	자매결연
우호협력	중국 래서시	2000. 7. 26.	협정서
	중국 문등시	2001. 12. 14.	협정서
	중국 판진시	2003. 2. 19.	의향서
	중국 심북신구	2003. 3. 21.	의향서
	중국 해림시	2004. 9. 3.	의향서
	일본 대마시	2005. 11. 15.	협정서
	포르투갈 포츠코아시	2016. 7. 5.	의향서
	스페인 살라망카시	2016. 11. 2.	의향서
	포르투갈 신트라시	2017. 12. 10.	우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코 트르제비치시	2018. 6. 18.	우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베트남 화빈성	2019. 7. 3.	협정서

울산매일

2022년 1월 3일 월요일 001면 종합

‘검은 호랑이’의 기운 솟아라...힘차게 떠오른 ‘임인년’ 새해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 1월 한반도 육지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을 찾은 해맞이객들이 동해바다 위로 힘차게 솟아오르는 일출을 보며 한해 소망을 기원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oo@usm.co.kr

울산제일일보

2022년 1월 4일 화요일 006면 사회

울산지역 인구 감소에도 울주군은 인구 증가

생애주기 맞춤 정책 등 인구 유지 효과로 7월부터 순유입... 인구감소 대응 '대통령 표창'

울산지역이 인구 감소 문제로 고심 중인 가운데 울주군이 효과적인 맞춤형 인구정책을 펼쳐 인구 유입에 특목히 기여하고 있다.

3일 울주군에 따르면 저출생 고령화 등 영향으로 지난해 울산인구가 역대 최고 유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은 지난해 7월부터 인구가 순유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합계 출산을 역시 1.16명으로, 전국 0.84명(울산 0.98명) 대비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울주군이 추진한 맞춤형 인구정책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군은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인구유지와 인구유입 부트렉 전략으로 인구정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군은 청년의 미래를 위한 인생 전반의 10단계 문제를 분석해 청년일자라, 미래산업, 결혼, 주거, 임신, 출생, 육아, 청소년, 교육, 경력단절여성, 건강강한 노후까지 인생전반에 걸친 참신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인구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왔다.

또한 집이 없어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 남녀를 위해 지역 최초로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와 주택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기획했고, 적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지원해 지역 외 신혼부부 유입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전국 최초 남양부부 교통비, 경력단절 여성 취업패키지 운영, 전국 최초 규모의 공교육정책과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전국 최초의 청소년 성장지원금을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를 조성하고 있다.

청년의 사회적 참여와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센터, 연 730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대학생 장학사업, 청년창업 등 다양한 청년정책과 인프라를 만들고 노사가 함께하는 울주형 그린뉴딜 일자리 모델개발, 신산업 중심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생태계도 조성 중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와 장수 환경을 위해 산재전문공공병원을 유지했고 연구개발특구, 드론평구,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울주형 스마트팜 특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6개 지구에 4만5천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유치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울주형 공공타운하우스는 도농복합도시 소멸위기지역 인구유입의 획기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도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이 즐겁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찾아가는 건강도우미, 노인일

자리 확대, 목욕이미용권, 치매안심센터 등 다양한 실버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울주군이 전국 최초, 지역 최초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주민 거주만족도가 91.4%에 달하는 성과를 내며 도농복합도시형 생애주기 융합적 인구정책의 표본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31일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도 지역발전유공 '인구감소대응' 부문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면서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을 확산하고 공유하기 위해 전국 우수지자체를 추천받아 지역발전 기여도, 난이도, 창의성, 파급력, 지역 활력 제고도를 기준으로 심사했으며, 대통령 표창은 울산 울주군과 충북 옥천군 등 2개 지역이 수상했다.

이선호 군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제2의 분단이라고 볼될 정도로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이 살려면 근본적으로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돼야한다"며 "앞으로도 출생부터 노후까지 전 생애에 걸친 총체적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펼쳐 전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지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울주군, 만17세 학교밖 청소년에 年 100만원 지원

일정 횟수 이상 상담 참여 등 충족시 25만 포인트 분기별 지급

울산 울주군이 올해부터 만 17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지역 최초로 시행한 '청소년 성장지원금'에 이어 청소년 복지 정책을 확대한 것이다.

울주군은 올해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복지포인트 지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울주군지역 만 17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울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울주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일정 횟수 이상 상담을 받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이 사업은 지역 최초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청소년 성장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 성장지원금'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만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이찬호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별도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울주군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거쳐 승인을 받아냈고, 관련 조례도 제정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를 모두 마련했다.

울주군은 학교 밖 청소년들 중 만 17세가 진학·진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로 보고 지원 대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3학년 시기, 검정고시 후 대학을 진학하거나 취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는 없어 특정 시기를 결정해야 했다"며 "만 17세는 사회로 진출하기 전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학교로 다시 돌아가거나, 직업을 찾는 등의 방향을 선택하고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시기이고, 그만큼 지원도 필요한 시기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울주군은 분기별로 25만원씩 4차례에 걸쳐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다만 지원 대상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일정 횟수 이상 상담을 받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첫 분기는 별도의 기준 없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후 3차례는 센터 상담·프로그램 참여를 확인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원금이 단순히 일회적인 현금성 복지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일종의 정금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다.

복지포인트는 울주군의 '청소년 성장지원금 포털(lulispoin.benepia.co.kr)'을 통해 도서·악기·화구·운동기구·전자기기·문화공연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2004년생으로, 14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울주군은 올해 당초예산으로 20명분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면, 이듬해 '청소년 성장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청소년 성장지원금'은 올해부터 거주기간 요건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됐다. 지난해 산불카드 형태로 지급했던 20만원 상당의 교통비는 사라지

고, 분기별 복지포인트를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려 관여 포인트로 지급한다. 산불카드 방문 수령과 분할 등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대상 청소년은 2003년생으로, 2,100명으로 추산되며, 울주군은 올해 당초예산으로 21억원에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주성미 기자 hns394@ulsan.co.kr

울주군, 21억 투입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울주경찰서 협업 범죄예방 환경 조성
출입구 차단기 설치·공용시설 보수 등
26일까지 접수 심사 후 7월 공사 착수

울주군은 올 한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울주군이 직접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용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

과한 공동주택으로, 지원실적과 준공연한 및 세대수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특히 올해는 나홀로 아파트 등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울주경찰서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단지 내 출입구 차단기 설치, 고화질 방범용 CCTV 설치, 주차장 보수가 대표적 대상이다.

한편,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시설물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결과보고서를 주민들에게 배부해 내가 사는

주택의 현 상태를 이해하고 스스로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으로 지원제한 기간 및 지원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3일부터 26일까지이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오는 3월 중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7월 중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우수기자 jeusda@



울주군 신규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울주군은 지난 11일 청사 문수홀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선호 울주군수가 신규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주군, 군립병원 입지 검토 착수...7월께 후보지 나올 듯

**다음주 중 용역 발주...‘의료취약’ 남부권 중 점근성 등 고려
복지정책 수립 등 활용 위해 ‘1인가구 지원 종합계획’ 용역도**

울산 울주군이 온산·온양·서생·웅촌 등 ‘남부권’ 지역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립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병원 입지 검토에 착수한다. 후보지는 이르면 오는 7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은 다음주 중 남부권 군립병원 입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울주군은 남부권에 최대 200병상 규모의 ‘울주군립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남부권에는 2019년 지역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남울산보림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119구급차를 이용한 응급의료환자들이 10~30km씩 떨어진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2020년에는 2,600명이던 이송환자가 지난해에는 3,230명으로 24.3% 늘어났다.

울주군은 흉부, 뇌혈관 질환을 기본으로 한 응급의료시설과 소아병동 등을 갖춘 150~200병상 규모의 군립병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울주군은 군립병원으로 적합한 후보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환자를 비롯한 의료수요를 분석하고, 환자들의 이동거리,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심각한 인구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 정책’인 만큼 도시 ‘확장성’ 측면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역은 울주군이 지난해 말 수립한 ‘2040 울주 권역별 중장기 발전계획’ 중 지역 주민들의 숙원 등을 반영해 ‘남부권 군립병원’ 사업을 우선과제로 선정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울주군은 올해 당초예산으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남부권 군립병원 입지 검토 △1인가구 지원 종합계획 등

2건의 용역을 각 5,000만원씩 들여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인가구 지원 종합계획’ 용역은 울주군지역 1인가구 현황을 조사·분석하는 방식이다. 전체 1인가구 수, 연령별·성별 분포와 거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용역을 통해 도출된 자료는 1인가구를 위한 복지정책은 물론, 공공주택 공급 등 도시기반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울주군은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층 1인가구가 밀집된 지역에는 실버주택·공공타운하우스 비교적 더 많이 제공하고, 여성 1인가구가 많은 지역에는 범죄예방 등 안전시설물을 강화하는 등

의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울주군은 남부권 군립병원 입지 검토와 1인가구 지원 종합계획 등 2건의 용역을 모두 다음주 중 발주할 계획이다. 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용역을 진행하면, 오는 7월께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2040 울주 권역별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도출된 여러 사업·정책 가운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 용역을 결정했다”며 “이들 용역 결과를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해 울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미 기자

郡, 산악구조·범죄예방 등 5대 스마트 인프라 구축

국토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선정...40억원 지원 받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등 연계 시너지 효과 창출...“새 수요 발생 기대”

울산 울주군이 국토교통부 공모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2일 울주군에 따르면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지역 도시문제를 스마트솔루션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 4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기초지자체 16곳을 선정한다.

울주군은 △산악구조서비스 △도시관리서비스 △농업진단서비스 △범죄예방서비스 △방사능방재서비스 등 5개 서비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됐다.

이들 서비스는 모두 울주군청 드론통합관제센터에서 총괄 관리하며, 드론을 연계해 넓은 지역에 신속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악구조서비스는 상북면 일원 영남알프스 등산객들이 조난을 당했을 때, '도와줘 울주' 앱을 통해 요청하면 드론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119가 도착할 때까지 상황을 전파하고 인계한다.

도시관리서비스는 삼남을 일원 KTX 울산역세권과 복합특화단지 등 신도시 개발 과정을 담고 3차원 맵을 구축해 각종 위원회 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농업진단서비스는 범서읍 구영리 일원의 벼농사를 스펙트럼·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해 벼의 생장 정도와 병충해 등을 판별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범죄예방서비스는 울주경찰서와 협업체범서읍 구영리 일원의 주민 불안감이 높은 지역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

는 강변, 등산로 등을 순찰하며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내용이다.

방사능방재서비스는 서생면 일원의 방사능 수치와 사고시 교통 흐름 파악, 시설물 관리 등을 수행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울주군은 이들 서비스를 통합하는 3차원 관제 플랫폼과 드론표준데이터분류시스템, 데이터관리시스템, 3차원자동매핑시스템, 농작물자동진단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드론 시스템 자동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과 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 등과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드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향상되고, 새로운 스마트시티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성미 기자 jsm3864@iusm.co.kr

‘미래먹거리’ 원전해체연구소 건축 승인

“5월 원전해체 장비 연구·개발 예타 결과 나와... 그 전까지 설계·부지정지 작업”

울산의 신성장동력으로 원전해체산업의 핵심인 원전해체연구소가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지난해 말 건축허가가 내려진 데 이어 최근 건물 설계까지 거의 완료돼 오는 10월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원전해체연구소(이하 원해연)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및 기장군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내려졌다. 설계도 거의 마무리 단계로 오는 4월 완료 예정인 실증분석동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동 및 연구동, Mockup시험동 등은 이미 설계가 완료됐다.

현재로서 원해연 설립의 시작을 알리는 장비구축예타 결과가 최대 관심사다.

원해연의 장비구축을 위한 ‘원전해체 장비 연구·개발(R&D)’은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넘지 못해 한 차례 무산됐다. 이후 같은 해 9월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 같은 해 10월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원해연 건물에 들어가는 기자재 고도화 △원전해체 기술 상용화 △방사성 폐기물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 비로소 원해연 설립 작업이 시작된다.

총사업비는 5천666억원으로 지난 2020년 5월 첫 예타 신청 때 제시했던 8천712억원보다 3천46억원이 줄었다.

시 관계자는 “오는 5월께 예타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제도적인 만큼 이번에는

예타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비구축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원해연은 착공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계속 설계 및 부지 정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영커 기업을 도와 지역 원전해체산업을 주도할 에너지 특화기업도 울산의 경우 4개가 선정됐다.

이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2개이고, 울산은 4개가 선정됐다”며 “에너지 특화기업뿐 아니라 향후 5년 동안은 원전해체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원전해체 감소기업 육성에 도 본격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전해체산업의 중심점이 될 원해연은 영구 정지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시험장)·인력양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울산시와 부산시는 2019년 4월 공동으로 원해연을 유치했다.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일원과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에 걸쳐 건립되는 원해연은 연구시설 전체 면적 7만 3천198㎡ 중 울산은 5만7천642㎡이고, 부산이 1만5천556㎡다. 정문과 연구동, Mockup시험동, 방사화학분석동, 핫셀 등 주요 시설물은 모두 울산 지역에 설치되고, 사무동은 부산 관내에 들어선다. 법인 소재지 역시 부산(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454)으로 정해졌고, 연구소 운영 인력은 80~120명으로 예상된다.

이상길 기자

울주군,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치매셔틀버스 운영 등 호평

울산 울주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울산시에서는 울주군이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올랐다.

이번 혁신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의 243개 광역과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율혁신, 참여와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정부,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등 총 5개 항목 14개 지표로 진행됐으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과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평가단이 평가에 참여했다.

평가 결과 울주군은 89.7점을 획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2점이 상승하였을 뿐 아니라 군 단위 평균 63.3점을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성적이다.

세부 평가 결과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주민참여 활성화, 사회적 가치 강화 노력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열린 행정을 위한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 스마트 방사능 방재시스템 및 울주형 비상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난관리의 디지털 혁신,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치매셔틀버스 운영 등 다양한 주민 밀착형 혁신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영기자 lala4090@

郡, 배송팀 활용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역적 한계 극복

전화상담·처방 가능한 동네 병·의원 4곳...24시간 운영 서울산보람병원 뿐
도서산간지역 많은 특성상 인근에 '동네약국'마저도 없는 마을 적지 않아
비대면 배달 서비스 취약...도움 줄 수 있는 지인·가족 없는 확진자 '막막'
郡, 희망일자리 근로자 '배송팀' 24시간 운영...의약품 전달 '공백' 최소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 제도가 운영 중인 가운데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울산 울주군은 '비상'이다. 울주군은 자체 '배송팀'을 적극 활용해 지역적 한계 극복에 나서고 있다.

15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공개된 코로나19 병원 지정 현황에 따르면 울주군지역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4곳이다. 범서읍의 범서다온의원, 언양읍의 다솜의원, 청량읍의 하나 가정의학과의원, 온양읍의 온양센텀 소아청소년과의원 등이다.

이들 병·의원은 60대 이상 등 고위험

군의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관리군'이 스스로 집에서 치료를 하다가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악화하면 전화로 '비대면'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마저도 울산시 홈페이지에 공지된 현황에는 2곳이 빠져있다. 일부 병원이 실제 진료·처방을 진행하지만, 공개 명단에서는 제외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4시간 건강 상태를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울주군지역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삼남면의 서울산보람병원 1곳뿐이다.

다른 지자체의 동네 병·의원은 △중구 3곳(울산시 홈페이지 기준 2곳) △남구 6곳(3곳) △동구 3곳(2곳) △북구 3곳(4곳), 의료상담센터는 △중구 2곳 △남구 3곳 △동구 1곳 △북구 2곳 등이다. 병·의원 수를 단순히 비교하면 5개 구·군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자체 면적 등을 고려하면 울주군은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태다. 각 병·의원이 확진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뒤 처방전을 약국으로 보내 의약품을 제조하게 되는데, 울주군의 지역적 특성상 이의 약품을 받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6일부터 재택치료자의 처방 의약품 조제·전달 약국을 모든 동네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확대·변경하긴 했지만, 대부분 병·의원이 인근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달하고 도서산간지역이 많은 울주군의 경우 인근에 '동네약국'마저도 없는 마을도 적

지 않다.

제조 가능한 약국이 인근에 있다 해도 확진자가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심과 달리 쉼터비 등 비대면 배달 서비스가 취약한 탓이다. 홀로 사는 주민이나 일가족이 모두 확진돼 외출이 가능한 지인·가족이 없는 확진자는 막막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의료인프라 부족과 지역적 한계를 인지하고 자체 '배송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에게 집집마다 생필품과 자가진단키트 등을 지급하는데, 울주군은 희망일자리 근로자들로 '배송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이 '배송팀'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확진자들의 자택에 약국에서 제조한 의약품을 전달하고 있다. 희망일자리 근로자 6명으로 이뤄진 '배송팀'은 주말, 야간에 상관없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확진자들의 처방·제조 의약품 배

송은 하루 평균 6~7건에 이른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실제 공지된 의료기관보다 훨씬 더 많은 병·의원이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저마다 사정으로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확진자에게는 공개 명단에 한정되지 않고 동네 병·의원을 통해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인·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확진자의 경우 약국에서 요청하면 자체 배송팀을 통해 집집마다 제조 의약품을 전달하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주군 관계자는 "자체 배송팀을 통해 현재는 별다른 무리 없이 확진자들에 제조 의약품 전달하고 있다"며 "후후 재택치료가 급증할 경우 현재 6명인 배송팀 인력을 늘려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기 기자 jsm.3864@usm.co.kr

울산옹기축제 '제10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 수상

〈축제경제 부문〉

온라인 옹기테마파크·옹기TV 호응
“더 발전된 문화관광축제로 성장할 것”

울산옹기축제가 (사)한국축제콘텐츠 협회에서 주최하는 2022년 제10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서 축제경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제10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선정하는 상으로, 2022년에는 울산옹기축제를 비롯한 전국 28개 축제가 각 분야별로 수상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온·오프라인 축제를 개최한 지방자치단체와 축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심의위원회의 1, 2차 서류 심사를 거쳐 28개 축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울산옹기축제는 울주군과 (재)울주문화재단 주최·주관으로 '2021 Welcome to 옹기마을'을 주제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개최됐다.

축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막 전날 전면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전환됐지만, 옹기마을을 VR로 구현한 '온라인 옹기테마파크'와 유튜브 채널 '옹



옹기마을을 VR로 구현한 '온라인 옹기테마파크'.



유튜브 채널 '옹기TV'를 통해 홈쇼핑 등 다채로운 온라인 콘텐츠를 운영했다.

기TV'를 통해 다채로운 온라인 콘텐츠를 운영해 48만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온라인 옹기테마파크는 VR 속 옹기마을에서 해뜨미 캐릭터의 마을 해설과 '숨은 해뜨미 옹기찾기', '옹기종기 퀴즈' 등으로 유튜브 중심의 온라인 축제 공간을 확산해 관람자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이선호 군수는 “이번 수상으로 울산옹기축제의 경제적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기쁘다. 올해는 옹기문화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좀 더 발전된 문화관광축제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022년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에 선정된 축제는 울산옹기축제 외에도 보령머드축제, 안성맞춤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제주들불축제, 시냇길축제, 천안흥타령춤축제, 철원한탄강얼음트레킹, 지리산산청곶감축제, 영동포도축제, 해남미남축제, 진안홍삼축제,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예산삼국축제, 한성백제문화제대백제전,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광주동구추억의충장축제, 영동포여의도봄꽃축제, 해운대모래축제, 새만금k-pop페스티벌, 순천푸드앤아트페스티벌, 봉화은어축제, 안양시민축제<우선협'춤'2>, 서편제보성소리축제, 강동선사문화축제, 대한민국청년농부대전, 호조별축제(습드레), 대전효부리문화축제이다.

고은정 기자

시교육청-지자체 울산형 혁신교육 '맞손'

서로나눔교육지구 연찬회 개최
올해 5개 구·군 사업계획 발표
학교 밖 체험·미래기술특강 등

울산교육청과 울산 5개 구·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로나눔교육지구(울산형 혁신교육지구)'의 올해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시교육청은 24일 5개 구·군 관계자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서로나눔교육지구 연찬회를 열고 올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중구는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혁신교육”을 목표로 올해 3개 분야, 12개 세부사업을 진행한다.

혁신교육기반조성 분야에 △민·관·학·정 협치 관계망(거버넌스) 운영 △중구협의회 대표단 운영지원 사업을, 마을

교육공동체 성장 운영 분야에 △마을교사 양성·성장지원 사업운영 △마을교육협의회 운영·지원 △학교연계 교육과정 △중구마을키움터 △중구마을교과서 △혁신도시공공기관협력사업을 진행한다.

또 혁신교육 소통·공간 활성화 분야로 △혁신교육지원센터 △열려라 참깨공방 △청소년 진로직업체험교육 △혁신교육 누리집 사업을 펼친다.

남구는 올해 지역 곳곳의 다양한 경험과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둔다. 학교 밖 현장체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5개 사업을 폐지하고, 4개 신규 사업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연계 교육 과정으로 △행복남구 체험학교 △울산의 보물, 장생포 담기 프로젝트 △환경프로젝트 워크북 지원 사업을, 지자체 특화 교육사업으로 △학교

로 안전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에 뛰어들 울산군은 지역 연계 교육과정으로 △유기적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교육 운영 △즐거움 공감 행복한 소통 홍보 영상 제작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함께 마을과 학교를 이어주는 교육 징검다리 사업으로 울주 자연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목장에서 치즈 피자 만들기 △동식물원에서 먹이주기 △곤충사육 키트 만들기 사업을 진행한다.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북구 역시 올해 이 사업에 동참했다.

북구는 미래기술 체험을 위해 △삼성탐방 △미래기술특강 △진로유형 워크숍 △미래직업 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청소년 토론 배틀을 지원하고

UNIST와 협약을 통해 과학캠프도 운영한다.

지역 내 초등학교(1~3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무릉서당을 운영하는 기로한 계획도 눈에 띈다.

동구는 현대예술회관을 활용한 사업계획을 내놨다. 교과와 연계해 공연과 미술 작품과 소나기 공연을 관람한다.

현대예술회관의 무대기본 구조, 조명 시설, 음향장비를 살펴보는 ‘무대 뒤가 궁금해’ 공연장 백스테이지 투어를 진행한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2019년 중·남구청과 ‘서로나눔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7월과 8월, 12월에 울주군과 북구, 동구까지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함께 추진 중이다.

김지혜기자 uskh@

'반구대계곡' 유네스코 등재 본격 도전장

市, 올 상반기 문화재청에 세계유산 '후보' 신청 예정... "OUV 발굴에 매진"

울산시가 울주군 대곡리 반구대 계곡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본격 도전장을 내민다.

시는 반구대 계곡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문화재청에 세계유산 '후보'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록목록으로 선정된 반구대 계곡이 올해 안으로 후보로 선정되면 내년에는 유네스코에 정식으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이 이뤄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후보 선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내년에 준비를 통해 문화재청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재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그러면 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은 다시 외교부에 요청, 유네스코에 정식으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이 이뤄지게 된다. 등재 목표는 2025년 7월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 및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을 포함한 반구대 계곡 일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개발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핵심은 OUV에 있다. 따라서 등재 신청까지 남은 기간 동안 문화재청과 협력을 통해 반구대 계곡 일대의 OUV 발굴에 매진해 더욱 깊이 있는 논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구대 계곡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10월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출범시켰다.

추진위는 행정, 학술연구, 보존관리, 대외협력 등 4개 분과 총 38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당초 계획을 수정해 위원장을 울산시장으로 바꿔 추진력을 한층 높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으로 사연담 수위조절안을 공식 천명했다.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는 울산 암각화 박물관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안전한 물관리를 통한 반구대 암

각화 보존 방안' 논의의 틀을 통해 사연담에 수문을 설치해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암각화의 연평균 침수일을 42일에서 1일로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반구대 암각화 종합 보존방안을 2024년까지 수립해 추진하고 암각화 공원 조성, 세계암각화센터 건립 등 관광사업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당시 울산시와 환경부, 문화재청, 한국수자원공사, 반구대암각화시민모임은 김 총리 주재로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상길 기자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영진위 국제규모 육성지원 사업에

3년간 중소규모 육성에 이어
올해 국제적 위상 인정받아
"아시아대표 영화제로 성장"

제7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영화진흥위원회의 '2022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제7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비롯한 국제영화제 8개와 제12회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등 7개 중소규모 국제영화제 등 총 15개 국제영화제를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진위가 세계적인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국제영화제를 육성하기 위해 매년 공정한 심사를 거쳐 국제영화제 총 40억원, 중소규모 국제영화제 총 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제7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비롯해 △제17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4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26회 부천국



지난해 열린 울주 세계산악영화제의 한 장면.

UMFF 제공

제판타스틱영화제 △제24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등 8개다. 이들 영화제에는 최저 9000만원에서 최고 12억 8000만원까지 각각 차등 배분된다.

중소규모 국제영화제는 제12회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등 7개다. 이 영화제에는 최저 3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까지 지원금이 분배된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지난 2019년 이후 3년 동안 중소규모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올해는 국내 유일의 산악영화제로서의 차별성과 국제영화제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높인 점을 인정받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에 지원해 선정됐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사무국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극장과 온라인상영관, 헤드셋극장 등 영화제를 지속 성장시키기 위해 시도했다. 이번 선정은 계기로 앞으로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산악영화제로 성장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심사위원들은 "국내 수십 개 국제영화제 중 심사 자격이 있는 영화제만 지원하는 것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축제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제7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오는 4월1일부터 10일까지 울산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와 별빛야영장 일대에서 42개국 148편의 영화 상영을 비롯해 공연·체험·전시·토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울주군 노범수, 거제장사씨름서 통산 10번째 장사

문준석 물리치고 태백급 우승
“초심으로 훈련 매진 좋은 결실”

노범수(23·울주군청)가 위더스제약 2022 민속씨름 평화의도시 거제 거제장사씨름대회에서 개인 통산 10번째(태백장사 9회·금강장사 1회) 장사 타이틀을 획득했다.

노범수는 지난 25일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태백장사(80kg 이하) 결장전(5전 3승제)에서 문준석(30·수원특례시청)을 3-1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지난해 12월 민속씨름 문경 왕중왕전 대회에서 태백장사에 오른 노범수는 올해 첫 황소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16강에서 김원호(양평군청)를 2-0으로 물리친 노범수는 8강에서 윤필재(의성군청)를 4강에서 장현진(제주특별자치도청)을 각각 2-1, 2-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문준석과의 결승에서도 노범수의 기세는 이어졌다. 첫판 덧걸이로 기선을 제압



노범수가 위더스제약 2022 민속씨름 평화의도시 거제 거제장사씨름대회에서 개인 통산 10번째(태백장사 9회·금강장사 1회) 장사 타이틀을 획득했다. 울주군 제공

한 노범수는 두 번째 판 밀어치기를 성공시켜 2-0까지 앞서 나갔다. 세 번째 판 문준석이 안다리를 성공시켜 한 점을 내줬으나 네 번째 판 자신의 주특기 기술인 잡채기로 상대를 놓치고 우승을 확정했다.

노범수는 경기 뒤 인터뷰에서 “앞전 두 대회에서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마

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기분이 좋다”라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훈련에 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항상 믿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흥래기자 starwars0607@ulsanpress.net

신고리 5·6호기 운영 허가 심사 본격화

KINS 1년여 안전성 확인 거쳐
원안위 결과 검토 후 최종 결정

울산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영 허가를 위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심사에는 약 1년 3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허가가 나게 된다.

원안위는 지난 25일 원안위 대회의실

에서 열린 155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신고리 5·6호기 운영 허가 심사 계획을 보고받았다.

현재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준공 예정 시점은 각각 2024년 3월과 2025년 3월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20년 8월 5일 운영 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KINS는 한수원의 운영 허가 신청 서류가 본심사에 착수할 정도로 형식적 완결성을 갖

췌는지 검토해 왔다.

KINS는 “신고리 5·6호기 운영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기간은 15개월 소요 예정”이라며 “전체 심사 일정은 사업자 답변과 현안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KINS는 신고리 5·6호기 운영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를 약 1년 3개월 간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원안위는 KINS의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5·6호기 운영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한빛 1·2호기 관련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또 KINS로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연료공사업(아라연구동) 허가 심의 관련 내용도 보고 받았다.

조흥래기자 starwars0607@

관광+스포츠까지... 영남알프스, 관광메카로 뜬다

**'트레일 페스타' 지역특화 사업 선정
산 능선 장비 없이 뛰는 스포츠 대회
10월 27~30일까지 4개 구간 개최
3년간 매년 국비 5억씩 총 15억 지원**

울산시 울주군 영남알프스의 대표 스포츠 행사 '울주 트레일 페스타'가 올해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돼 명실상부한 전국 산악관광의 메카로 우뚝서고 있다.

울주군은 '울주 트레일 페스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2년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별 관광 자원 등을 활용해 융·복합된 신규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 선정에 따라 울주군은 올해부터 매년 국비 5억원씩 3년 동안 총 1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된 국비 5억원에 맞춰 당초 예산 1억원에 추경 예산으로 군비 4억원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울주 트레일 페스타는 가시산과 신불산 등 해발 1천m 이상의 9개 봉우리가 이어진 영남알프스 능선을 장비 없이 뛰는 트레일 러닝 대회가 핵심이다.

울주군은 산악 레저 페스티벌을 기획해 영남알프스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악관광지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 유입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앞서 울주 트레일 페스타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화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선정에 이어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지역 특화 국제이벤트 사업에 선정돼 2년 연속 대회가 열렸고, 군은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울주 트레일 페스타를 산악관광의 대표적 인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올해 대회는 오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일대

에서 △9PEAK(124km) △5PEAK(44km) △2PEAK(23km) △1PEAK(10km) 구간으로 나눠 개최할 계획이다. 또 트레일 러닝대회에 참여한 선수와 일반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부대프로그램을 마련해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울주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부대 프로그램도 개발해 관광객을 끌어 모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3년 동안 울주의 우수한 관광 자원과 다양한 산악 스포츠 프로그램을 활용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소비·스포츠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봉식 기자

온산산단 대기업 본사 郡 이전 촉구 봇물

**범군민추진위원회 1월부터 서명운동
이달 종료 앞두고 현재 10만명 돌파
내달 중 온산산단 기업에 전달 예정**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 본사를 울주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8일 온산국가산단 대기업 본사이전 범군민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월 6일부터 진행한 이전 촉구 서명운동 참여자가 현재 10만명을 돌파했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군민 50% 이상인 12만명을 목표로 온산국가산단의 대기업 본사를 울주로

이전 요구하는 대대적인 서명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달 서명운동 종료를 앞두고 아직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11만명을 달성하더라도 울주군민 전체 22만명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서명운동은 수도권 과밀화·집중화 현상에 따른 지역생산소득 역외 유출 문제로 인해 추진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온산국가산단에는 329개 사업이 입주했고, 1만4천591명이 근무 중이다. 업종을 보면 석유화학 분야가 102곳으로 가장 많고, 기계 51곳, 운송장비 49곳 등이 뒤를 잇는다.

생산실적이 1월 기준 월 4조9천429

억원에 달하지만 온산국가산단 입주업체 중 상당수가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어 소득 역외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산국가산단 입주업체 중 2020년 자산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경우 울주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은 단 2곳뿐이며, 울산의 경우 2019년 기준 소득 12조원의 역외 유출이 이뤄졌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지역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청년의 이탈을 야기하는 반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오롯히 감수해야 한다.

추진위는 온산국가산단 대기업들이

울주군으로 본사를 이전하면 상생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안전적인 일자리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지역청년인구 유출 감소 △영업 인력의 지역 내 선순환 △산합협력 통한 지역인재 양성 △자치분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대 등 장점을 제시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달 말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을 취합해 정확한 참여자수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중 서명부를 온산국가산단 대기업들에 직접 전달하고서 울 본사의 울주군 이전을 권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봉식 기자



울산 울주군이 상북면에 위치한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내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울주군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센터' 개소

**복합웰컴센터 벽천폭포 옆 위치
등산로 안내·인증물품 배부 등
지역 산악관광 교두보 역할 기대**

울산 울주군이 상북면에 위치한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내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센터는 복합웰컴센터 벽천폭포 옆에 위치해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센터에서는 영남알프스 완등 참여 안내, 모바일 앱 이용 안내, 등산로 안내, 인증물품 현장 배부 등이 이뤄진다.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뿐만 아니라 울주군 관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울주 관광 활성화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주군은 관광객 증가 효과를 지역 활성화에 연계하기 위해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센터 조성을 추진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영남알프스 완등의 마지막 코스를 인증센터로 하면 인증물

품도 즉시 수령할 수 있고 지역 및 관광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영남알프스를 시작으로 울주군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은 지난 2019년을 시작한 이후 참가자가 날로 증가해 대한민국 대표 산악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2020년에는 1만 657명, 2021년에는 3만 3,477명이 완등 완료했으며, 2022년 1월에 개시한 모바일 앱은 현재 5만 2,000여 명이 설치해 완등에 참여하고 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막...화창한 주말 관람객 줄이어

**'언제나 함께' 슬로건...10일까지 산악·자연·환경 다룬 42개국 148편 상영
크리스토프 비엘리츠키 '울주세계산악문화상'·김홍빈 대장 '특별공로상'
숏 산책 프로그램·스위스 전통악기 클래스·클라이밍 등 체험행사도 '눈길'**

국내 유일의 국제 산악영화축제, 제7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www.umff.kr)가 지난 1일 개막을 시작으로, 4일차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행사부터 가을에서 봄으로 개최시기를 당긴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언제나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10일까지 열흘간 이어진다.

올해는 산악·자연·환경을 다룬 42개국 148편 영화와 다양한 체험 행사가 관객들을 만난다.

영화 상영 장소는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를 중심으로 등여알프스 야영장, 작천정 별빛야영장 등이다. 온라인 상영은 44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지난 1일 오후 6시 30분 복합웰컴센터 대형 상영관 '울프시네마'에서 조주홍, 문지애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렸다.

행사는 오프닝 영상 상영, 울주세계산악영화상 시상, 개막 선언, 영화제 소개 영상 상영, 특별공로상 시상, 홍보대사와 심사위원 인사, 개막작 소개 상영,

400대 드론이 선보이는 라이트쇼 등으로 진행됐다.

매년 산악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울주세계산악문화상'은 폴란드 산악인 크리스토프 비엘리츠키가 받았으며, 올해 울주세계산악문화상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산악인 고(故) 김홍빈 대장을 선정, 김 대장 아내 방영은씨에게 상을 수여했다.

개막작으로는 피터 모티머, 닉 로젠 감독의 다큐멘터리 '알피니스트:마크-앙드레 르클레르'(The Alpinist)가 상영됐다.

지난 주말동안 영화상영과 함께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돼 맑은 날씨 속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자연에서 이야기하다' 프로그램으로 '멀티플렉스 시대 한국영화의 현재와 미래'가 마련됐고, 전문 숲해설가와 함께 하는 숲 산책 프로그램, 영남알프스에서 태양과 달을 직접 확인하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 '낮하늘의 별구경', 영화제 주변국으로 선정된 스위스의 전통의상을 입고 악



제7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지난 1일 울주군 상북면 복합웰컴센터 울프시네마에서 개막한 가운데 산악인 고(故) 김홍빈 대장이 울주세계산악문화상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돼 김 대장의 아내 방영은 씨가 상을 받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09@usm.co.kr

기를 배워볼 수 있는 '스위스 전통악기 클래스'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3일 오후 산악인 고 김홍빈 대장의 치열했던 마지막 여정을 담은 영화 '산악인 김홍빈의 산 너머 삶'이 상영됐으며, 김홍빈 대장의 미망인 방영은 씨와 산악인들이 함께해 '울프 토크'도 진행됐다.

이외에도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에어돔으로 구성된 UMCA 전시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했으며,

복합웰컴센터 클라이밍장에서 열린 '울주 클라이밍 데이', 안전한 소재로 친환경 세제를 만드는 체험 행사 '지구로부터, 지구를 위한'도 눈길을 끌었다.

한편 영화제 측은 국제경쟁 본선 진출작 14개국 30편과 아시아 경쟁 진출작 12개국 12편을 확정했다. 국제경쟁 부문에 출품된 작품을 대상으로 알피니즘과 클라이밍·모험과 탐험·자연과 사람 등 색선별 작품상과 심사위원 특별상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이선호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이사장은 개막 행사에서 "산악영화에서만 느낄 수 있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이번 봄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티켓 가격은 온라인 상영 5,000원(44편 대상으로 열흘간 이용 가능), 일반 관람권 3,000원, 울프패스(영화·페스티벌 프로그램과 온라인 상영을 모두 예약할 수 있는 통합형 티켓) 1만5,000원 등이다.

고은정기자 kowriter1@usm.co.kr

울주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매니페스토본부, 226곳 자료 분석
주민 소통 등 5개 지표 'SA 등급'
92개 중 80개 완료·12개 추진 중

울산 울주군이 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022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6일 울주군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이번 평가에서 울주군은 공약 이행을 96%, 완료율 89%로 전국 평균인 71.7%를 뛰어넘는 높은 공약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이가운데 주민 소통과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지표에서는 울산지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평가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실적 및 정보 공개에 대해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226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 이행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 울주군은 5대 분야 92개 공약으로, 이 중 80개 과제를 이행 완료했고, 나머지 1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나타났다.

또 분기별로 공약을 자체 점검하고 공

약 추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누리집을 만들어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군민이 참여하는 공약 이행평가단 운영을 통해 공약 실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선호 군수는 "이번 평가는 울주군이 추진해오고 있는 다양한 공약에 대해 높은 이행률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히 공약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도 함께 인정받아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해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구정책 분야 최우수상과 일자리 정책분야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지역 최초로 2관왕을 달성했다.

신성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

“하늘에서 꽃가루 뿌려요” 1석3조 드론수분

군·농협 드론작업 시연회
1만4000㎡에 꽃가루 살포
2명 3일치 작업 30분만에
작과율 증대·수분작업 편리
노동력 부족 문제까지 해결

앞으로 수년 내 울산지역 배농가에서 드론을 활용한 배꽃 수분작업이 보편화 될 전망이다.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배꽃 개화 적기 살포로 작과율 증대와 수분 작업 편리성뿐만 아니라 노동력 부족 문제까지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울산 울주군과 울산원예농협은 7일 울주군 두서면 구랑리 송정마을 강성중씨의 배 과수원에서 드론을 활용한 수분 작업 시연회를 열었다.

시연회에는 이선호 울주군수와 김철준 울산원예농협 조합장, 이경한 농협 울산지역본부장, 울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배 작목반 등이 참석했다.

배꽃 개화 시기에 맞춰 열린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용 드론이 꽃가루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드론은 가로, 세로 길이가 76.2cm 가량에 중량이 12.7kg에 이른다. 대당 가격이 2000만원 가량으로 울주군의 예산 지원으로 울산원예농협이



7일 울산 울주군 두서면 한 배농가에서 대형드론이 배꽃 수분작업을 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2명의 작업자가 3일동안 할 작업량을 30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2대를 구입했다.

이 드론은 (주)한국헬리콥터 직원이 조정하자 하늘로 날아오른 뒤 1만4000여㎡에 이르는 넓은 배밭을 구석구석 다니며 꽃가루를 살포했다. 드론에서 살포된 꽃가루는 드론 날개가 일으키는 바람을 타고 배꽃 주위를 떠다녔다.

울산원예농협 관계자는 “배꽃 수분 작업은 배꽃이 제일 활짝 폈을때 상온 17℃ 정도에서 해야하는 고난이도의 작업”이라며 “사람이 하게 되면 2명이 하더라도 최소 3일 가량 걸리는데,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25~30분이면 끝난

다”고 설명했다.

배과수 농가 강성중씨는 “인건비도 문제인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군과 원예농협은 6개 과수원(두서면 2, 청량읍 2, 서생면 2)에서 드론 수분 시연회를 연 뒤 작과율과 인건비 절감액 등을 고려한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군과 원예농협은 드론을 활용한 인

공 수분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배꽃 개화 적기 살포로 작과율 증대와 수분 작업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배인공수분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예상된다”며 “이번 드론 활용 시범사업 이후 배의 작과 상태 등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세계식품, 내년까지 삼남에 420억 투자 공장 신설

건과류 토종브랜드 머거본 제조판매사 5만 6천㎡ 규모 산단 조성·200명 채용 부산 소재 본사도 울산으로 단계적 이전 시, MOU 체결 기업 성장 행정지원 최선

울산시의 건과류 제조업체인 세계식품이 13일 오후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울산공장 신설을 위한 '식품제조 생산 공장 신설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계식품은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일대 '삼남 머거본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식품제조 공장을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기존 부산에 있는 본사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투자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세계식품은 건과류 토종 브랜드 '머거본'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국내에 150여 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을 비롯한 10여 개 국가로 세계적 수준의 건과류 제품을 수출 중인 중견기업이다.

현재 늘어나는 수출 물량과 국내 소비를 충족하기 위해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405-1 일대 부지 5만 6,121㎡ 규모의 '삼남 머거본 일반산업단지'를 민간 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세계식품은 이곳에 총 420억을 투자해 '삼남 머거본 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2만 7,000㎡ 규모의 공장을 오는 2023년까지 건립하고 200여 명의 신규



울산시와 세계식품주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일대 '삼남 머거본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식품제조 생산 공장 신설 투자 양해각서'를 송철호 울산시장과 신주식 세계식품 대표이사가 체결했다.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세계식품 신주식 대표는 "현재 홈플러스, 이마트 등 국내 대형유통업체, 항공사 기내식 등에 입점해 있고, K아몬드 머거본, 시즈닝 아몬드 코스트코, 샘스클럽, 월마트 등 국내외 유수의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입점 문의가 쇄도해 제품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특히 이번 투자를 통해 고향인 울주군

삼남에 뿌리를 내리고 고향 발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본사 이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계식품은 한국의 건과류 가공식품의 대표기업으로 다양하고 독특한 맛의 시즈닝 아몬드를 개발해 국내를 넘어 세계적 수출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고 타 업체와 차별되는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울산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한걸음 더 도

약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세계식품은 '삼남 머거본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에서도 기존 부산 영도에서 생산하던 수출 전용 제품과 수산물 가공품을 제조할 계획이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의 생활 패턴에 맞는 제품군을 확장해 선보일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9659@

경상일보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002면 종합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22일부터 업무 돌입

언양읍 중심가에 위치해

서울주 주민들 접근 편리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가 지역 주민들의 이용불편이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

동울산세무서(서장 이경순)는 22일 울산시 울주군 동문길 21에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지서장 정문수)를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에는 지서장을 포함해 총 23명의 인력이 재산법인팀, 부가소득팀, 민원실 3개 부서에서 근무하며, 각종 세무에 대한 신고, 민원증명 발급, 체납업무 등 조사업무를 제외한 모든 세무업무를 처리하게 된

다.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언양읍 중심가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다.

언양읍행정복지센터가 바로 옆에 위치해 언양읍, 범서읍, 삼남읍, 두동면, 두서면, 삼동면, 상북면 등 서울주 지역 납세자들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빠르게 납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순 동울산세무서장은 "지역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동울산세무서(본서)를 방문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방문 민원인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지혜기자 jh143@ksilbo.co.kr



22일 울주군 언양읍에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지서장 정문수)가 신설된다.

울주 해뜨미 노범수, 올해 태백급 2관왕

결승서 오흥민에 3대1 승

울산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의 노범수(23)가 '위더스제약 2022 민속씨름 과산장사씨름대회'에서 개인 통산 11번째 장사(태백 10회·금강 1회) 타이틀을 차지했다.

노범수는 1일 충북 괴산군 괴산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 태백장사(80kg 이하) 결승전(5전 3승제)에서 오흥민(42·부산갈매기)을 3대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올해 3월 거제대회 태백급 우승을 차지한 노범수는 이로써 올해 2관왕을 달성하며 개인 통산 11번째 장사 꽃마를 땀다.

8강에서 장현진(제주특별자치도청)을 2대0으로 꺾은 노범수는 강력한 우승 후보 윤필재(의성군청)와 만난 4강에서도 2대1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도 기세는 이어졌다. 첫판과 두 번째판 들배지기를 연이어 성공시킨 노범수는 3번째 판에서 오흥민에게 한 점을 내줬으나, 이어진 4번째 판 잡채기로 상대를 눌리고 우승을 확정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위더스제약 2022 민속씨름 과산장사씨름대회'에서 태백장사에 등극한 울주군청 노범수.

범서~두동 잇는 군도 31호선 선형개량 공사 마무리

사고다발 죽음의 도로 오명 탈피 기대
기존 도로 대비 최대 1.8m 경사 완화
제설 기능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도
울주군, 90억 투입 3년 공사 끝 완공

울주군 범서읍과 두동면을 잇는 범서 군도 31호선(지지고개)의 선형개량 공사가 마무리됐다.

군은 9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공사는 범서읍과 두동면을 잇는 연결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9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 2019년 5월 착공해 이날 준공했다.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받고 있던 군도 31호선은 이번 준공으로 주행 안전성은 물론 환경과 경관을 모두 갖춘 도로로 재탄생했다.

그동안 이 구간은 급경사와 굴곡진 산악지형, 응달 현상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사고위험이 많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



울산 울주군은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범서읍과 두동면을 잇는 범서 군도 31호선(지지고개)의 선형개량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해 주행 안전성은 물론 환경과 경관을 모두 갖춘 도로로 재탄생했다.



다. 군은 이에 따라 굴곡진 선형개량과 함께 기존의 도로보다 최대 1.8m 정도 경사를 낮췄다. 또 응달지역에 따른 저울철 제설 취약 구간 해소

를 위해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고 도로변 녹색공간도 조성했다.

군 관계자는 "새롭게 조성된 이 도로는 향후 두동 공공타운하우스 조성 및 울산외곽순환고속도

로 두동IC 설치 등 인구 유입과 교통량 증가가 예상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도로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h@



울주군은 12일 지역 최대규모의 인도교인 'KTX 역세권 인도교'의 공사 시작을 기념하는 기공식을 가졌다.

울주, 언양-삼남 연결 'KTX울산역 인도교' 기공식 개최

울산시 울주군이 12일 울주군 삼남읍 하평공원에서 주민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X 역세권 인도교'의 공사 시작을 기념하는 기공식을 가졌다.

'KTX역세권 인도교'는 주민 숙원 사

업으로, 태화강을 횡단해 언양읍과 삼남읍을 연결하는 총길이 168m 규모로 추진된다. 1주탑 사장교 형식으로 총 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군은 인도교가 완공되면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역세권 거주 주민들이

언양 시가지의 도서관, 문화센터, 학교 등 지역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도교가 완공되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공사로 인한 불편 사항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동서발전은 16일 울산상업고등학교 인근에서 '울주군 스마트 버스정류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동서발전, 울주군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조성

태양광으로 전기 생산... 냉난방기·CCTV·와이파이 등 주민 편의 위한 스마트 기능 탑재

한국동서발전이 농어촌지역 버스정류장에 태양광을 활용해 냉난방, 와이파이 등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친환경 스마트를 조성한다.

동서발전은 16일 울산상업고등학교 인근에서 '울주군 스마트 버스정류장' 준공식을 열었다.

준공행사에는 강윤구 울주군 부군수,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울주군·범서읍 이장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외벽에 태양광 패널을 갖추고 있어 친환경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활용한다. 폭염이나 한파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냉·난방기와 냉온열 의자를 구비했고, 방범용 CCTV, 비상벨, 와이파이, 무선충전 등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스마트 기능이 탑재됐다.

동서발전은 농어촌 상생협력 출연기금 3억3천만 원을 재원으로 사업소가 위치한 여수(전남)·동해(강원) 도농 복

합지역의 교통요지 2곳에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이달 말까지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농어촌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조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면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울주군, 방사능방재 인프라 구축 '순항'

모의훈련 시스템 개발 완료·울주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내달 준공 앞뒤

원전 인접지역인 울산시 울주군이 방사능방재 시설과 시스템 등 확충에 박차를 가하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이 순항하고 있다.

울주군은 17일 군청 비둘기 홀에서 강운구 군수 권한대행과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능재난 대응 훈련시스템 구축·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방사능재난 대응 훈련시스템은 실제 재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인력을 운영해 주민 보호 조치를 연습하고, 사후분석을 실시해 유사시 대응능력을 향상한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발표된 훈련시스템은 울주군과 ㈜아레스가 지난해 10월 사업 착수에 들어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의 방사능 방재 모의훈련이다.

훈련시스템은 방사능재난 발생 시 조치사항을 가정한 다양한 훈련과 결과분석을 거쳐 재난 대응 절차 오류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사후분석 기능도 제공된다.

특히 그동안 주민동원 위주의 훈련과 달리 디지털 환경에서 이뤄지는 훈련시스템으로 변경,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맞춰 향후 타 재난 훈련의 큰 전환점을 제시할 전망이다.

울주군 방사능방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울주방사능방재지휘센터'도 건립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울주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총 사업비 95억원을 투입해 울주군 삼남면 교

동리 일대에 지상 3층, 전체 면적 1천 728㎡ 규모로 건립된다.

센터는 지역 내 방사능 재난 발생 때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 운영, 주민 소개를 포함한 주민보호 조치 의사 결정 등 현장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 막바지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울산은 전국 원전 가동지역 중 유일하게 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없었던 만큼 이번 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지역 방사능방재 역량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울주군은 올해 안에 방사선 비상 실내경보방송망을 구축하고, 종

하는 등 방사능방재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실내경보방송망의 경우 원전 최인접지역인 서생면 22개 마을 모든 가구 4천100여세대에 설치되며, 실외경보방송망의 단점을 보완해 원전 긴급 상황 발생 시 정보 소외계층도 놓치지 않고 신속·명확한 정보 전달이 이뤄지게 된다.

또 전자메뉴얼은 내용 검색 편의를 높이는 등 기존 종이메뉴얼의 불편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방사능방재 시설과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가 확충되면 주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원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울주군-경찰서, 전국 최초 '누네비는 비상벨' 운영

범죄 취약지 중 10곳 선정·설치

울산 울주군과 울주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350도 가변형 LED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용 비상벨인 '누네비는 비상벨'을 설치·운영한다.

23일 울주군에 따르면 '누네비는 비상벨'은 울주군과 울주서가 원-팀을 구성, 현장 방문을 통한 범죄 취약지 중 10곳을 선정해 설치했다.

현재 울주군에는 취약지 392곳에 방법용 CCTV와 함께 방법 비상벨은 운영하고 있으나 측·후면의 확인과 시인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설치된 '누네비는 비상벨'은 전국 최초로 기존 운영되었던 LED 안내판을 비상벨로 확장했다.

360도 가변형 LED 안내판을 고안해 만든 이 비상벨은 어느 방향에서든 인식할 수 있고, 야간에도 다양한 화면을 송출, 범죄예방 효과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변형 LED 기반의 '누네비는 비상벨' 디자인도 울주군과 울주서 직원이 공동으로 제작, 범죄예방을 위한 원-



울산 울주군과 울주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350도 가변형 LED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용 비상벨인 '누네비는 비상벨'을 설치·운영한다. **울주군 제공**

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울주군과 울주서 관계자는 "범죄예방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누네비는 비상벨'은 지역의 '안전지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고 쾌적한 울주군을 만들기 위해 원-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

‘郡 청각셉테드 안심화장실’ 주민생활 혁신사례 선정

행안부, 지자체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사업 34개 사례 채택
군, 공중화장실에 청소년용 고주파음·불법촬영 안심장치 활용

울산시 울주군이 청각셉테드(CPT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적용해 조성한 안심화장실이 주민생활 변화를 이끈 지역혁신사례로 선정돼 전국 곳곳으로 확산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행정혁신 사례를 널리 확산하자는 취지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 대상 우수사례 34건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울주군 안심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내에 청각셉테드와 불법촬영 안심장치 등을 조성해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한다.

셉테드는 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기법으로, 주로 건물이나 시설물 비치 시에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없애거나 조명 설치로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는 등 시각 디자인이 많이 활용된다.

특히 울주군은 구영공원 안심화장실에 시각을 넘어 청각을 활용한 셉테드를 설치해 주목 받았다. 구영공원은 도

심한 가운데 있어 인근에 학원과 PC방 등이 밀집해 청소년의 야간 비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울주군은 울주경찰서와 함께 공중화장실에 일정 시간 이상 머물 경우 10대만 들을 수 있는 고주파를 방출하는 장치를 설치했다.

나이에 따라 청각 기능에 차이가 있어 연령대마다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음역대가 다르다는 데서 착안한 장치다.

아울러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3면 반사경 등 안심장치도 설치해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했다.

행안부는 울주군 청각셉테드 안심화장실 등 34개 우수사례를 포함한 총 90개 사업에 대해 국비 28억원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해 59개 지자체로 확산한다. 이에 따라 △서울 중랑구 △광주 북구 △울산 동구 △경기 김포시 △전북 지안군 △경남 고성군 등 6곳에 청각셉테드 안심화장실이 도입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역혁신사례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해 주민생활의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관계기관 추진단을 구성해 선도 지자체의 경험을 전수하고 전문가 맞춤형 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과 울주경찰서는 청각셉테드 안심화장실이 실제 범죄 신고와 발생건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성봉식 기자

울산의 뿌리 ‘우시산국’ 그 흔적을 찾아서

웅촌서 ‘우시산국 축제’ 개최
헌다레부터 다양한 체험 다채

울주군 웅촌지역에서 지역의 뿌리를 찾아가는 축제가 펼쳐졌다.

삼국사기 열전 거도편에 나와 현재 울산 이름의 유래로 추정하고 있는 우시산국의 흔적을 찾아보는 제11회 우시산국 축제가 18-19일 울산 울주군 웅촌면 회야강 아리소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는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우시산국 국왕에게 차를 올리는 의식인 헌다례(獻茶禮)를 철저한 고증을 거쳐 재현한 신라시대 초기 복식을 갖춰 입고 진행했다. 또 웅촌 주민 노래자랑, 타악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마두전, 토기 만들기, 뗏목 타기, 트랙터 수레 타기, 손 모내기 체험, 지역문화유적 답사 등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즐길거리도 마련했다.



제11회 우시산국 축제가 18-19일 울산 울주군 웅촌면 회야강 아리소 일원에서 열렸다.

우시산국 축제는 웅촌을 중심으로 우시산국이 울산의 뿌리임을 알리고 그 터를 지키는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 시작됐으며, 2011년 ‘웅촌왕도읍문화제’라는 주민 화합형 문화행사로 첫선을 보였고, 2015년 ‘우시산국 축제’로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지난 2020년에는 우시산국 실존증명 학술대회를 개최해 웅촌이 우시산국의 중심이

있다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석암 우시산국축제추진위원장은 “그동안 코로나 여파로 체험형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준비했다. 이를 통해 울산의 옛 살터인 우시산국과 웅촌 지역의 역사 문화도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현기자 honey@ksilbo.co.kr

동서양 절묘한 음악극으로 만난 암각화 고래

전통타악+재즈·어쿠스틱 조화
신박한 스테이지 시범공연 성료

울주문화재단의 신박한 스테이지 시범공연 '퓨전음악극: 고래의 노래'가 24, 25일 연일 매진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공연의 첫 시작은 '고래, 바위를 만나다'로 '그물 당기는 소리'를 모티브로 한 한국 고유의 타율악기 '운라'의 맑은 음으로 서정적인 감성을 자극했다. 징, 팽과리 등의 타악기와 일렉기타, 키보드, 베이스기타의 밴드사운드가 조화롭게 앙상블을 이루며 내드름연희단과 플러그인사운드의 화려한 협연을 이어나갔다.

전통음악의 웅장하고 리드미컬한 타악 연주와 재즈, 어쿠스틱, 인디 음악 등의 다채로운 음악적 표현을 더하여 동해안 별신굿, 동해의 그물 당기는 소리, 고갈퍼포먼스 등의 경향도 연희를 짜임새 있게 풀어내 관람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공연은 울주문화재단을 대표하는 공연 레퍼토리 개발을 위한 시범공연으로 반구대암각화 속 고래이야기를 소재로 했다. '한 편의 서사시'를 중심으로 해



울주문화재단이 24, 25일 이틀간 선보인 신박한 스테이지 시범공연 '퓨전음악극: 고래의 노래'가 연일 매진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동·서양의 절묘한 음악적 콜라보와 반구대암각화의 고래 등을 형상화한 영상을 활용해 자유롭고 서정적인 방식의 음악극을 만들어냈다.

시민평가단으로 참여한 한 관람객들은 "연희단과 인디밴드의 음악적 특색이 잘 어우러졌으며 반구대 암각화의 고래 이야기를 음악극으로 만날 수 있어 신선했다"고 소감을 남겼다.

재단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60인의 신박한 시민평가단을 사전에 모집해 예술성, 대중성, 만족도 등의 평가를 진행했으며 160인 이상의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추진했다. 재단은 수혜자 중심의 울주문화재단 공연 레퍼토리 구축을 위해 전문가평가단의 의견과 함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년도 신박한 스테이지 사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울주군,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 부패방지시책 추진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 비전
직원 서약 등 중점·세부과제 시행

울산 울주군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2022년도 부패방지 청렴시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올해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을 주’를 비전으로, 3개 중점과제와 15개 세

부과제를 시행한다.

중점과제별로는 먼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전직원 청렴서약을 추진하고, 매분기 마지막 주 수요일 청렴의날을 운영하는 등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한다.

‘반부패인프라 공고화’를 위해서는 행정 착오나 비리를 사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직기강과 행동강령이

행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달 19일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울주군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하고, 자체 운영 규정도 제정했다. 아울러 교육과 신고장구를 활성화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지역사회반부패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으로는 울주군 군민감사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5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군민감시

관 제도를 운영한다.

이밖에도 오는 9월 중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렴콘서트를 개최해 공직 내 청렴문화를 소개하며 군민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울주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2020년과 지난해 2년 연속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상위권을 기록했다.

김상아 기자

“전국 최고의 군으로 명성 회복”

이순걸 울주군수

이순걸 울산 울주군수 지난 1일 울주군청 앞프스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취임사에서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를 조성하기 위해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선거 때 공약한 것처럼 울주를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기회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면서 “과거 전국 최고의 군으로 위상을 떨쳤던 명성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를 위해 첫 번째로 군민의 생명을 중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며 삶에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시대’를 활짝 열고, 두 번째로는 현장을 찾고 군민의 편에 서는 것을 행정의 중심에 두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 번째로 진정성 있는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군정에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이 약속을



이순걸 울주군수가 지난 1일 울산시 울주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지키기 위해 청소년에게 꿈과 행복을 드리는 복지지원, 의료환경 개선, 1사 1 청년 채용 더하기 운동, 소상공인 지원, 관광 활성화,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취임식을 마친 후 군수실에서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진하해수욕장 3년만에 ‘노마스크’ 개장...시민 “환영”

개장 첫 주말 4600여명 발걸음
안심콜·발열체크 절차 사라져
대부분 마스크 벗은 채 물놀이

폭염 속 도심 물놀이장도 인기
인파 몰리며 주차난·도로정체

울산지역 해수욕장과 도심 물놀이장이 3년 만에 정상 개장, 운영에 들어가면서 피서 인파들로 북적였다. 폭염 주의보 속 가족이나 친구 단위의 피서객들은 해수욕장을 찾아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물놀이를 즐겼고 해수욕장 주변 상가는 손님 맞이할 준비하는 분위기다.

지난 2일 오후에 찾은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수욕장, 작년에는 해수욕장 입구에 ‘출입체크를 완료하고 입장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고, 안심콜과 발열체크 및 체온스터커 등을 한 뒤 입장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이같은 출입 절차는 사라졌다. 2년 남게 이어져온 신종코로나 상황 속 해수욕장 입장 방식이 3년만에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자유롭게 해수욕을 하거나 모래사장서 일광욕을



지난 2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을 하거나 파라솔 아래에서 피서를 즐기고 있다.

즐겼다. 바다에서는 제트보트를 탄 피서객들이 탄성을 지르며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었다.

지현호(30·경남 진주)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해수욕장에 오니 너무 좋다”며 “이제 정말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진하해수욕장에는 개장 첫 휴일인 2일에 2500여명이 찾았고, 3일에 2100여명이 방문해 주말 이틀간 4600여명이 찾았다.

도심내 물놀이장은 인파가 몰리면서 일대가 주차난 등으로 몸살을 앓았

다. 지난 2일 남구 무거동 와외공원 물놀이장에는 아침부터 약 300여명이 방문해 물놀이를 즐기는 등 종일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물장구를 치는 아이들과 공원 물놀이장을 둘러싸고 돛자리를 쾄 가족 단위 이용객들로 시끌벅적했다.

아이들은 물을 맞거나 미끄럼틀을 타며 연신 소리를 질렀고, 어른들은 캠핑 의자와 텐트, 돛자리 등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 부채와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계속해서 땀을 흘리면서도 간식을 나눠먹으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었



불볕 더위 속 울산 남구지역 물놀이장이 지난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휴일인 3일 남구 와외공원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들이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쫓고 있다. 김동수기자

다. 김모(여·36·삼산동)씨는 “3년 만에 개장에 가족들과 주말 나들이 차 찾았다. 아이가 너무 좋아해 잠깐 들렀다가 날이 더운데도 몇시간 켜 못 들어가고 있다”며 “동네 물놀이장에 오니 진짜 여름이 온 게 실감난다”고 했다.

하지만 이용객들이 몰리면서 화장실이 막히는 등 불편을 겪었다. 와외공원 주변 등 물놀이장 주변에는 불법주차 등 주차난에도 도로 정체까지 몸살을 겪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울주군은 올해 진하해수욕장 방문객이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편의시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영주차장과 해수욕장 간 30분 간격으로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해수욕장 인근에 임시주차장 3곳도 마련했다. 또 샤워시설과 파라솔, 구명조끼, 튜브, 어린이 물놀이장 등을 모두 무료 대여해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동구 일산해수욕장은 오는 15일 개장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울주군은 13일 청사 7층 이화홀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용역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울주군, 드론 표준도시 1번지 조성 박차

도심항공 연계전략 수립 등 논의

울산시 울주군이 대한민국 드론 1번지 '드론 표준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울주군은 13일 군청 7층 이화홀에서 '드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순걸 울주군수와 용역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방향과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용역을 맡은 울산과학기술원과 ㈜더브릿지전략컨설팅은 '드론 표준도시, 울주'를 비전으로, 울주군에 '대한민국 드론행정 서비스 표준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앞으로 2024년 국내 드론시장이 8천억대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며, 'K-UAM R&D 통합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이 진행되는 울주군이 국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맞춰 울주군은 그동안 쌓아온 드론행정 경험과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

는 종합 상위계획을 수립하고,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을 연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주군에 도입된 다양한 드론 서비스의 활용방안을 마련해 드론행정을 고도화하고, 울주군이 보유한 무인비행체 역량들을 서로 연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번에 수립된 드론 기본계획을 토대로 울주군이 주민이 체감하는 드론산업의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준 기자



■ 서생면 용연길 160 FE01·FE갤러리 개관

정크아트 테마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테마파크·갤러리 구성 지속 콘텐츠 개발 다음달 6일부터 한달동안 아트서생 페어 전국 108명 작가 모여 다양한 작품 선포

남울주지역 서생에 정크아트 문화예술 복합공간이 조성됐다. 이 곳에서 8월 초 서생아트페어가 마련될 예정이다.

18일 FE01(대표 김득남)과 아트서생(대표 김득남)에 따르면 울주군 서생면 용연길 160에 FE01, FE갤러리가 개관한다.

정크아트 테마파크와 갤러리로 구성된 공간으로 울주군 서생에 지속적인 전시와 문화 콘텐츠를 개발, 울주의 예술문화발전을 이룩어 나가며 지역 작가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지다. 단순한 정크아트 조형

공간이 아닌 꿈과 상상이 머무르고 자라는 예술문화 복합공간으로서 온가족이 다양한 예술 장르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향후 지역의 신인작가 발굴전 등 연중 다양한 기획전시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곳에서 올해 두번째 작가 중심의 아트페어 '2022아트서생'이 전국의 작가 108명이 참여하는 울주 최대의 예술행사로 진행된다. 서울, 경기, 충청, 경북, 경남, 전라, 부산, 울산 지역작가 등이 평면, 입체, 설치 등의 작품을 선보이는 아트서생은 오는 8월6일부터 9월 6일까지 한달간 열린다.

관 주도가 아닌 작가들의 자발적 참여

로 이뤄지는 행사로, 기존의 아트페어와 달리 작가들에게 참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구매자를 위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미술품 가격을 책정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득남 아트서생 대표는 "서생은 간절함을 비롯해 자연환경과 작은 포구들이 그 어느 지역보다 잘 보존돼 있는 곳으로 자연환경과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요소가 많다"며 "앞으로 아트서생을 문화행사로 정례화해 지역과 상생하는 중남권의 대표적 아트페어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la4090@

전국 최초 울산 학교서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실시

시교육청-울주군 상호협력 협약
매뉴얼 실제 사고시 유효성 검증
학생 행동요령 체득과 적극 협조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주군 학교 학생들의 방사능 방재 훈련을 위해 울산교육청과 울주군이 협력해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과 이순걸 울주군수는 27일 교육청 3층 집현실에서 방사능방재 교육훈련분야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체계 강화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사능방재 대비 방재분야 자문 및 업무 협조 △상호 합의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적극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의 협약으로 오는 11월에 예정된 전국 최초 '학교기관 (상북중학교 예정) 방사능방재 이대민구조소 체험훈련'이 가능해졌다.

울산교육청은 이 훈련을 통해 기존 방사능방재 매뉴얼이 실제 사고 때 유효하게 작동하는지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울산교육청과 울주군청은 지역 내 가장 시급한 재난대피 교육·훈련이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교육·훈련'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크고 작은 협력을 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이순걸 울주군수는 27일 울산시교육청 집현실에서 '방사능방재 교육훈련분야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어왔다. 대표 사례로 고리원전을 포함한 울주군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방사능 비상 시 행동요령 체득화를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방사능교육(울주군 26교 지원)' '가상현실(VR) 기반 방사능방재 훈련프로그램 도입'과 '희망학교 무료 대여 사업(울주군 8주간 8교 지원)' 등을 함께해 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안별 국지적으로 해오던 상호 교류 협력이 명확한 체계를 갖추고 방사능방재

교육·훈련분야가 더 내실화되고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울산지역의 특수한 여건에 맞게 전국 최초로 전 학교에서 연 1회 방사능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원년의 해를 맞아 방사능방재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울주군청과 협약을 맺게 돼 매우 기쁘고, 기대가 크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인 만큼 울주군과 성공적인 협업으로 원전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시·도교육청

에 지자체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교육·훈련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번 상호협력 업무협약으로 울산지역 모든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방사능방재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안전한 학교, 안전한 울주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hj@ulsanpress.net

울주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장관 표창·포상 500만원 수여
평가단, 전국 355개 기관 실시
재해 구호 인프라 확보 등 호평

울산 울주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포상금 500만 원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

리기본법에 따라 대학교수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 29, 시도17, 시군구 226 공공기관 63)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재난관리 단계별 16개 역량과 45개 지표에 관해 종합적으로 역량을 진단·개선하고, 재난안전관리 5개 분야(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업무실적을 평가했다.

울주군은 이번 평가에서 △재난관리 기금 관리 실적 △소관분야 유형별 저감

활동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여름철과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 △재해구호 인프라 확보와 관리 실적 △재해구호분야 훈련 실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흡한 분야는 보완해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미기자

울산 수소 모빌리티 자유특구 규제혁신 '최우수상'

신산업 기술 상용화 지원 경제 활성화
市, 트램 사업 등 우수 사례 6건 선정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출품

울산시는 지난해 상반기에 추진된 규제혁신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울산시는 지난 29일 오전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2022년 울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된 규제혁신사례 17건 중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건 등 모두 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는 울산시 에너지산업과의 '울산 수소친환경 이동수단(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례가 선정됐다. 이 사례는 수소선박, 수소지게차 등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수소 이동수단 제품 제작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 부재로 제품을 상용화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실증 특례 승인,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 및 선박 상용화 실증 착수, 법령 개정 건의 등으로 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 사례다.

울산시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수는 △국내 최초 '울산 수소시스템'으로 전환



장수원 울산시 행정부시장(가운데)이 지난달 29일 시청 행정부시장실에서 열린 '울산시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시상식'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울산시 에너지산업과의 '울산 수소 친환경 이동수단(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례 등 우수사례 6건에 대한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 도시로 나아가다(울산시 광역교통정책과) △영남알프스 9봉 완등 인증사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활성화(울주군 관광과)가 수상했다.

장려는 △울산 향토식품기업 성장의 날개를 달다(울산시 산업임지과) △북선전철사업으로 '사라진 농경지 진입로'를 민관협력으로 새로 만들다

(북구 농수산과)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울산시 사회혁신담당관)이 선정됐다.

시상금은 최우수상 15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이 각각 수여됐다.

장수원 행정부시장은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시상을 통해 규제개선을 힘 있게 추진한 직원

들의 사기를 올리고, 우수사례가 확산돼 또 다른 규제혁신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이달 열리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 나갈 예정이다. 전우수기자 jeusda@



이순걸 울주군수가 지난 29일 '2022년 울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영남알프스 9봉 완등 인증사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을 담당한 관광과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주군 영남알프스 완등사업 '우수사례' 선정

인증센터개소 등 적극행정 호응
울산시 규제혁신 평가서 '호평'

울산 울주군의 '영남알프스 9봉 완등 인증사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이 '2022년 울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31일 울주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울산시와 5개 구·군에서 추진된 총 17개 규제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과 우수 2건이 선정됐다. 울산시를 제외한 구·군 중 우수상을 받은 사업은 울주군이 유일하다. 앞서 울주군은 2019년 8월 영남알프스 9봉 완등 인증사업 시행 이후 참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복잡하고 불편한 신청 접수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정포

즈와 출력물을 활용한 인증방식을 폐지하고, 정상석에 지정표식을 설치해 일반 방문객도 사전 준비 없이 즉시 인증이 가능하도록 방식을 개선했다.

또한 완등 인증전용 모바일 앱을 개발해 사용자 중심으로 처리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개선했으며, 모바일 앱을 이용한 지역업체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이 밖에도 완등 인증센터를 개소해 완등 인증을 위한 안내와 지원을 펼치는 등 다양한 적극 행정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노력으로 울주군 영남알프스는 지난해 일 평균 외지인 방문객이 2019년 대비 9배 증가했으며, 울주군민으로 한정하면 하루 평균 방문객이 40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수많은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상아 기자

2025년까지 삼동면 일대 '영남알프스 관광단지' 조성

골프·물놀이 등 대규모 휴양·레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맞춰 추진
케이볼카에 암각화 센터도 건립
글로벌 관광객 유입 시너지 기대

‘영남알프스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울산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5년 서울산권 새 관광거점화를 향한 첫발을 뒀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5년은 국보 반구대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해인데, 이 시기 울산엔 ‘영남알프스 관광단지’ 뿐 아니라 ‘영남알프스 케이볼카’도 운영되고, 선사시대 유적인 반구대 일대엔 세계암각화센터 건립은 물론 트랜드한 역사문화탐방로도 조성될 예정이어서 글로벌 관광객 유입효과가 기대된다.

#울산, 울 첫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통과
울산시는 영남알프스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최근 ‘제1회 울산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천혜의 산악관광자원인 1,000m 고지 봉우리 9개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삼동면 조일리 산 25-1 일원 135만여㎡ 부지에 대형 숙박시설과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을 짓는 알프스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이 곳엔 △국내 4위 규모의 대형 실내의 물놀이&



‘영남알프스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울산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5년 서울산권 새 관광거점화를 향한 첫발을 뒀다.

스파, 4개점 썰매장, 승마체험파크, 일루미네이션파크, 타워형 콘도미니엄(350실)이 조성될 ‘테마시티’ △힐링연수원(100실)과 관광호텔 2개소(300실)가 조성될 ‘힐링시티’ △생태야영장과 경사를 활용한 프라이빗 테라스 하우스(50실)가 조성될 ‘패밀리시티’ △18홀 대중계 골프장이 조성될 ‘그린시티’ 등의

청사건이 그려져 있다. 사업비는 3,209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앞서 울산제2구는 지난 2019년 11월 울주군에 관광단지 지정을 제안했으며 현재 사유지의 약 70%를 확보하고 있다.

시는 교통접근성이 양호하고 영남알프스, 신불산 자연휴양림, 국보 반구대암각화 등 서울산권 관광명소의 지리적 중심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업의 준공 목표 역시 2025년으로 국보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등재 시점과 맞췄다.

이처럼 서울주지역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울산의 관광산업은 동해오션뷰를 활용한 강동관광단지와 나란히 동서발전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됐다.

#문체부와 협의 후 국토부에 심의 신청
이를 위해 울산시는 조만간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단지 지정 협의를 거친 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작년 말 남동동굴유역환경정량과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를 마쳤고, 재해영향성검토 등을 거쳤다.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6720억원 상당의 생산 유발, 1392억원의 소득 유발, 3292명의 취업 유발, 266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620억원의 수입 유발, 313억원의 세수 유발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연간 20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생태 문화, 관광 분야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앞으로 ‘알프스 관광단지’ 조성뿐 아니라 삼동-KTX울산역 연결도로 개설과 KTX북함북화단지 조성 등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사업 개발에 전력할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울산에 전국 6번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준공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3층 규모
비상상황시 사고수습 등 대응 총괄
평시엔 방재시설 점검·훈련 수행
고리 등 현장센터 대체 거점 활용도

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울산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울산권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재난의 현장 대응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데, 일단 센터 개소로 주민들의 방사능 불안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9일 오후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건

립된 울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센터 준공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순걸 울주군수, 박종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김석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이상민 새울원자력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울주 현장지휘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96억6,700만원을 투입,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향교로 일대 1만㎡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728㎡ 규모로 건립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사업을 주관한 센터는 앞으로 새울원자력 본부의 방사선 비상 상황 발생 시 사고수습과 주민

보호 조치 등의 현장대응을 총괄하고, 평시에는 방재 시설·장비 점검, 방재훈련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울주 현장지휘센터는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 등으로 대규모 원전사고가 발생해 현재 운용 중인 고리·월성 현장지휘센터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 현장대응 거점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지휘센터 운영·관리는 고리원전지외사무소가 맡으며, 근무인원은 원안위와 KINS 방재원 각 1명과 시설관리, 행정보조, 경비원 등 모두 8명이다.

센터의 주요 시설로는 1층에 합동감시센터와 합동진료센터, 회의실, 통신실, 제어실, 발전기실 등

이 있고, 2층에는 대회의실과 방재상황실, 협의회 위원실, 3층에는 교육실, 비상요원 대기실 등이 들어섰다.

이번 울주센터 건립에 따라 울산 울주군은 △경주시(월성센터) △부산 기장군(고리센터) △전남 영광군(영광센터) △경북 울진군(울진센터) △대전광역시(대전센터)에 이어 국내 6번째 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보유하게 됐다.

김 시장은 센터 준공식에서 “이번 울주 현장지휘센터 준공으로 방사능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환 기자 csh999@ulsanpress.net



‘울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준공식’이 9일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향교로 113-55에서 열린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순걸 울주군수, 박종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김석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이상민 새울원자력본부장 등 참석 내빈들이 준공 축하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유은경 기자 206sajm@

조명 받지 못했던 조선의 차 도구 '옹기'

옹기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내년 4월까지 3개 테마로

울산옹기박물관이 22일 2022년 특별기획 전시 '차와 옹기·옹기 속에 핀 조선의 차'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은 이순걸 울주군수와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실 제막, 전시장 관람 등을 진행했다.

오는 2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옹기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Ⅱ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조선 시대의 차 문화와 옹기 차 도구를 소개한 다.

△조선의 차 문화 △차를 품은 옹기 △차 문화 체험존 등 총 3개 구역으로 나눠 전시가 진행된다.

전시 관람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울산옹기박물관이 22일 2022년 특별기획전시 '차와 옹기·옹기 속에 핀 조선의 차' 개막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순걸 울주군수와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장, 군의원 등 참석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오는 추석 연휴에는 9월 9일 당일을 제

외한 기간은 정상운영한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번 '차와 옹기' 특별기획전이 조선시대 차 문화와 옹기

차 도구를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uskjh@

지역 농협들, 농가소득 증대 행사
농산물 라이브커머스·모종 지원 등

지역 농협이 관내 농산물 판로 확대, 모종 지원 등 울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울산농협(본부장 이정환)은 29일 울주군청 햇빛광장에서 울주군 농특산물을 라이브방송으로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를 가졌다.

인기 개그맨 송준근이 진행을 맡은 이번 방송은 울주군의 예산지원을 받아, 울산농협이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5가지 농특산물을 네이버쇼핑을 통해 라이브로 판매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동안 진행된 이번행사는 1부 서생농협 배(품종 화산), 삼남농협 배(품종 황금), 2부 두북농협 엽알, 3부 청년창업농 생산 벌꿀 및 요거트 로 총 5가지 품목에 대해 시중가 대비 최대 20%저렴하게 판매가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이정환 울산농협 본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울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울주군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울산농산물과 울산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울산농협은 29일 울주군청 햇빛광장에서 주군에서 생산되는 5가지 농특산물을 네이버쇼핑을 통해 라이브로 판매했다.

○...청량농협(조합장 박동섭)은 29일~30일 청량농협 경제사업부에서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배추모종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추모종 무상지원은 청량농협에서 약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약1,200명의 조합원에 1

인당 1판(120구)을 무상 공급하는 행사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대한 호응을 얻어 올해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에 공급한 배추모종은 김장철을 앞둔 조합원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섭 조합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영남알프스 9봉 완등 참여자 88% '만족'

3581명 중 97% 계속 참여 의향
銀기념메달서 상품권 변경 반대
편의시설·등산로 정비 등 건의
郡, 내년도 사업 계획 반영키로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영남알프스 9봉 완등 인증사업'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은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 어플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3,581명 중 88%가 완등 인증사업에 만족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응답자의 97%가 사업에 계속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해 사업에 대한 호응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일정으로 완등에 참여한 응답자는 80%이며, 1인당 소비한 금액은 7만원 이하가 77%, 그 중 약 42%는 3만원 이하라고 응답해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사업 연계 관광 및 체류형 관광 지속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분야에서는 응답자 75%가 울주·울산 지역에서 주로 소비한 것으로 집계됐고, 음식·먹거리, 교통, 숙박, 쇼핑 순으로 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완등 인증 기념물품을 현행 은 기념메달에서 지역상품권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5%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13%가 동의했다.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보 △완등 인증 기념물품 현행 유지 △등산로 정비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등이 제시됐다.

울주군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2023년도 완등 인증사업 세부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내년 완등 인증 기념물품으로는 은 기념메달을 3만개 한정으로 제작하며, 사업 대상자인 영남알프스 9봉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인증 기념물품 수령 및 내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말께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 어플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김지혁기자 uskh@



울산시 울주군이 2일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전 국장, 주요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과 민선 8기 첫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했다.

울주군, 온양 시작 12개 읍·면 주민과 대화

주요 현안사업 의견 수렴·답변
내달 건의 사항 처리결과 보고회

울주군이 2일 온양읍을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민선 8기 첫 '주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군은 이번 '민선 8기 2022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울주군의 새 슬로건인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열린 소통으로 군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울주군의 미래에 대해 상호 공감하며 지역통합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순걸 군수와 전 국장, 주요 부서장 등이 참석해 12개 읍·면별로 주민 100여명

과 만나 군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알린다.

또 읍·면별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군은 행사 종료 이후 다음달 중 '건의 사항 처리결과 보고회'를 열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수렴한 건의사항을 검토해 주기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과의 대화 행사를 통해 민선 8기 군정 방향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지역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한층 더 깊은 민생 중심의 소통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울주군은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비롯해 '365 소통군수실', '울주군민 원탁토론회' 등 군민들과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h@

남구 '처용의식'·울주군 '골매이 동제 기록화' 사업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사업 선정

문화재청, 21개 사업 선정
사업별 연 최대 2억원 지원
3년간 전승 체계화 지원도

울산 남구의 '처용의식'과 울주군의 '골매이 동제 기록화' 등 2개 사업이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문화재청은 14일 '2023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 대상으로 '울산 처용의식 문화의례 기록화 및 전승기반 구축사업'과 '울주군 골매이 동제 기록화 및 활용사업' 등 총 21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가치 있는 비지정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올해 시작한 사업으로, 2026년까지 각 지역 무형유산 100종목을 선정해 지자체와 협업으로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사업별로 연간 최대 2억원을 지원하며 사업 성과가 좋으면 3년 동안 전승 환경 조성 및 전승 체계화에 대한 지원을 계속한다.

내년도 사업 공모에 총 12개 시·도에서 54개 사업계획서가 접수됐으며, 사업 타당성과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최종 21건이 선정됐다.

이 중 울주군의 '울주군 골매이 동제 기록화 및 활용사업' 등 4개 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연속해서 선정된 사업이며, 남구의 '울산 처용의식 문화의례 기록화 및 전승기반 구축사업' 등 나머지 17개 사업은 신규로 선정됐다.

미래 무형문화유산 육성 사업으로 선정된 울주군의 골매이 동제는 경상남북도의 문화를 모두 살필 수 있는 지역인 울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고을+막이'의 복합명사인 '골매이'는 마



울산 남구 '울산 처용의식 문화의례 기록화 및 전승기반 구축사업' (위)과 울주군 '울주군 골매이 동제 기록화 및 활용사업'이 문화재청 '2023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음로 들어오려는 온갖 재앙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마을과 구성원을 살피서 보호해 주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사회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울주 골매이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에 기록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 처용의식 문화의례 기록화 및 전승기반 구축사업'은 현대에서 보면 향토 축제의 일환으로 중대한 일을 치르고자 할 때나 치른 뒤 신명에게 고하는 행사다. 일반적인 제사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처용문화제 개막전 항상

열리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처용무 등으로 전승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역사, 전승현황, 주변 문화와 관련한 조사·연구 등을 영상과 책자로 기록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학술대회나 전승자 발굴·육성 프로그램을 내년 부터 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무형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발굴해 대표 문화 콘텐츠로 육성하고 국민의 문화적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무형유산 보호·육성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성현기자 honey@ksilbo.co.kr



제31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식이 지난 24일 울주군 두서면 화랑체육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순걸 군수, 김영철 군의장, 김두겸 시장, 서범수 국회의원, 노옥희 교육감 및 시군의원 등 주요 내빈들이 입장하는 군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영하고 있다.

12개 읍·면 주민 한마음 '소통·화합의 장'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성료

지난 24일 열린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성료됐다.

울주군은 이날 두서 화랑체육공원에서

12개 읍·면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읍·면 대항 체육경기 6종과 적잖아 경기 4종이 열렸으며, 바둑·장기, 민속놀이 등 체험관과 흑백사진관, 발마

사지와 지압체험관, 무료 미용실, 네일아트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됐다.

경기 결과, 삼남읍이 입장식 대상과 여자 승부차기, 단체줄넘기에서 1위를 거뒀으며, 두동면은 한궁과 윷놀이 종목에서

1위를 거뒀다. 줄다리기기는 서생면, 남자 승부차기는 상북면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존경하는 울주군민 여러분을 모시고 군민의 날 행사를 열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하루 군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h@ulsanpress.net

2년만에 돌아온 '웅기축제' 오늘 팡파르

내달 3일까지 별빛 야행·거리공연 등 42개 행사 풍성

'2022 울산 웅기축제'가 외고산 웅기마을에서 2년만에 30일 개막한다.

울산시 울주군은 이번 웅기축제의 주제를 '웅기에 실은 꿈'으로 정하고 국내 유일 '숨 쉬는 웅기축제'를 문화콘텐츠화하기로 했다.

축제는 다음달 3일까지 4일간 42개의 볼거리가 준비된다.

불꽃놀이, 웅기마을 별빛 야행 등 밤이 즐거운 장소와 거리 공연을 개최해 관람

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거리 공연은 전국거리예술단체가 참여해 웅기마을에 젊은 감성을 불어 넣는다.

이번 웅기축제는 △웅기의 철학적 미학과 웅기만의 친환경적 특색을 살린 축제 △시작적,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온오프라인 융합축제 △마을 중심의 축제 개발을 통한 일상을 축제로 연결하는 테마파크형 축제란 의미가 담겼다.

특히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가치를 담

아내기 위해 △지역민 주도형 축제 △전국단위 축제의 기반 마련 △울산웅기만의 친환경 축제 △관광객 친화형 축제로 기획됐다.

울주군 관계자는 "웅기축제는 국내 유일의 웅기를 주제로 부각시킨 차별화된 축제"라며 "이번 축제부터 웅기문화를 콘텐츠화해 전국적 명성의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고산 웅기축제는 올해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축제경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인준 기자



울산 울주군 외고산 용기마을에서 열린 2022 울산옹기축제 개막식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이순걸 울주군수, 김영철 군의장, 노옥희 교육감, 서범수 국회의원, 엄주호 경상일보 대표이사 등 내빈들이 가마 점화식을 갖고 있다.

울산옹기축제 3년만에 함께 즐겼다

연휴 맞아 나흘간 42만명 발길
전시공연·드론쇼·별빛야행 등
다양한 행사 참여 즐거운 한때

팬데믹 여파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2022 울산옹기축제'가 울주군 외고산 용기마을 일원에서 나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울주군 외고산 용기마을에서 개막한 울산옹기축제는 연휴를 맞아 가족·연인 등 4일간 42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용기박물관 메인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가마 점화식과 불도깨비 공연팀의 불꽃행진·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김영미무용단, 파이프 브라더 라틴 재즈 밴드, 풍물예술단 벼슬새, 소리꾼 김나니 등이 '울주판타지-옹기에 실은 꿈'을 주제로 개막공연을 펼쳤다. 용기마을을 할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용기마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꿈을 담은 공연과 300대의 드론이 선보이는 드론 아트쇼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축제 기간 용기문화공원, 아카데미관, 감성카페 등 축제장 곳곳에서는 8곳의 거리에술단체가 '옹기로(路)'를 테마로 '단디우화' '꼬마방울열차' '폴로세움' '드로잉서커스'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또 숲속정원에서는 옹기축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야간 콘텐츠 '별빛야행'이 마련돼 UV 라이트와 레이저 게이트 등 옹기의 빛과 시간을 표현한



2022 울산옹기축제에서 옹기장인들의 옹기 만들기 시연을 보고 있다.



어린이 '흙놀이터' 체험.

전시프로그램이 남녀노소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울산대 역사문화학과와 산학협력으로 추진한 전시프로그램 '영남요업 1970'은 폐옹기공장의 기계식 가마 등 아카이빙 전시를 통해 사라져가는 옹기마을의 역사와 가치를 일깨우고, 옹기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옹기마을 전역에서 열린 미션 투어 '옹기어드벤처'는 MZ세대 등 축제를 찾은 젊은 관람

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전통 옹기 제작 시연을 선보인 '장인의 손길', 전통과 현대식 옹기공방을 둘러보는 옹기공방 투어프로그램, 어린이들이 흙을 직접 만져보고 나만의 옹기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펼친 '흙놀이터' 등의 프로그램도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가족과 함께 축제장을 찾은 김민경 씨는 "오전 일찍 옹기마을에 왔는데 아이들과 체험활동 등 즐길 거리가 많아 하루 온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옹기마을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좋았다"고 말했다.

울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울산옹기축제가 옹기마을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을 비롯한 지역민들과 협업을 통해 옹기마을 고유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jih3783@ksilbo.co.kr



울주 농산물 직거래 야시장 개장 울산시 울주군주민주치위원회장협의회는 5일 범서생원체육공원에서 제1회 울주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장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순걸 울주군수, 김영철 군의장 및 시군의원 등 참석자들이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가락 하트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郡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본격 추진

영남알프스케이블카(주)와 실시협약 체결
복합웰컴센터~역새평원 2.472km 구간 확정
사업비 644억원 투입... 20년 운영 후 기부채납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는 넘어야 할 숙제

울산시 울주군이 민간기업과 손잡고 20년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3차 도전에 나섰다. 5일 울주군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을 위해 우선협상 대상자인 영남알프스케이블카(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1년 시작돼 사업이 두 차례 무산됐지만 다시 재도전에 나선 것이다.

◇자연생태 환경 어울린 친환경 케이블카 개발
울주군에 따르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644억원을 들여 전액민자로 추진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허가 방식으로 시행한다.

사업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 시설물, 토지 등은 읍·면·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며, 사업시행자는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다. 케이블카 이용요금은 운영 개시 전 협의해 확정한다.

노선은 북합웰컴센터에서 신불산 역사공원 일대 약 2.472km 구간이며, 삭도유형은 1선 자동순환식이다. 시간당 최대 1천500명 탑승이 가능한 10인승 캐빈 50여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은 케이블카를 비롯해 상·하부정류장, 주차장 및 편의시설이 포함되고, 구체적인 시설 규모는 실시설계 시 결정한다.

상부정류장과 케이블카 노선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낙동정맥을 벗어난 신불재 남서측 해발 약 850m에 위치하며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추진한다.

향후 하반기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5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업시행자로 지정된 만큼,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전력해서 최소한의 선택적 개발과 적극적 환경보전으로

네이블카 개발사업 실시

일시 : 2022. 10. 5.(수) 16:00 • 장소 : 8층 비둘기홀



울주군이 5일 청사 8층 비둘기홀에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이순걸 울주군수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손호태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연생태환경에 적합한 친환경 케이블카를 조성하겠다"며 "기존 관광시설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읍주군 관광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지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낙동정맥 비켰지만 자연환경 보전 논리 앞서
이날 실시협약이 체결 됐지만 사업완료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우선 사업시행자인 영남알프스케이블카주는 실시
설계를 토대로 낙동강유역청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두 차례 사업이 무산된 것은 낙동강유역청

남동강유역환경청은 케이블카 건립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카가 삼부로 지나

또 신불산의 자연환경이 뛰어난 '생태의 보고'이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보존에 힘을 쏟는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매주 신불산을 등반하며 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노선도

이불카 건립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지난 4일에는 성명을 내고 "케이불가 이용객이 많으면 그 자체로 환경훼손 원인이 되고, 잘 알면 방지되면 흉물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환경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서울주 금민들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케이블카 건립을 선호하는 성질은 이해가 되지만, 영남알프스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순걸 군수 공약, 제9회 환경지킴이 개발 목표

반면 울주군은 케이블카 개발을 꺼리는 분위기다. 크고, 케이블카 개발은 이순걸 울주군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 군수는 케이블카를 통해 정형원 울산관공지의 기복지대로 활용하길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케이블카를 출발지 일원인 덕영천관광단지지를 기존의 도심형 숙박시설에서 제9회 환경지킴이 개선 등을 투자를 계획하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울산을 대표하는 산악관광지인 영남알프스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 현재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개발, 민간투자 유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케이블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협력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호 기자

정인준 기자

울주군, ICT 한우종합관리 플랫폼 전국 첫선

차량 출입·개체 이력 등 통합 관리

전국 최초 축산분야 통합관리 시스템인 '울주군 ICT 한우종합관리 플랫폼'이 개발을 마치고 첫선을 보였다.

울주군은 13일 플랫폼이 구축된 연양읍 태기리 '정인철 농장'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방문 및 시연 행사를 가졌다.

울주군 ICT 한우종합관리 플랫폼은 군비 4억여원 등 총 5억8,000만원 상당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사)전국한우협회 울산시지회가 2018년 개발에 착수해 올해 완성했다.

당초 '축산 ICT 한우관리 통합시스템'으로 개발을 추진했으나 항목 관리 및 연



이순걸 울주군수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13일 연양읍 태기리 농장에서 전국 최초 축산분야 통합관리 시스템인 '울주군 ICT 한우종합관리 플랫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계가 가능하도록 기존 기능을 포함한 플랫폼으로 발전시켰다.

이번 플랫폼은 △차량 출입 △축산 등 목차량 △소독대장 △공지사향 푸쉬알림

△개체이력관리 △브루셀라, 결핵 신청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문전 판매·구매 △공판장 신청 △우시장 신청 △전력 제어 등 기능을 갖췄다. 신섬미 기자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 대회 개막 2022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2022 Uiju Trail Nine Peaks) 대회 개막식이 지난 28일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순걸 울주군수, 김영철 군의장 및 시군의원, 노옥희 교육감 등 참석 내빈들이 가지산 등 1천m가 넘는 영남알프스 9개 봉우리를 배경으로 9봉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31일 전북 진안군의료원에서 울주군의회 김상용·이상걸·노미경 의원과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 울산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울주 군립병원 설립을 위한 공공의료시설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울주군, 군립병원 건립 2차 벤치마킹 나서

시·군의회 함께 진안 마산 부산 공공의료시설 방문

울산시 울주군이 군민 숙원사업인 '울주 군립병원 설립'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울주군에 따르면 이순걸 울주군수는 울주군의회 김상용·이상걸·노미경 의원과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 울산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전북 진안군의료원, 경남 마산시의료원, 부산시의료원 현장방문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의료시설 현장견학을 통해 울주군 현황에 맞는 군립병원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문 대상 의료시설 규모는 △진안군

의료원 82병상 △마산시의료원 298병상 △부산시의료원 548병상 등으로, 모두 응급의료서비스를 갖췄다.

이순걸 군수와 의원들은 의료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병원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전략과 의료진 수급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질의와 논의를 가졌다.

이순걸 군수는 "실제 공공의료 현장을 다녀보니 우리 군보다 훨씬 적은 인구수 규모에도 주민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울주군민들이 야간에 타지역 응급실에 전전하지 않도록 시·군의회의 의원

여러분과 힘을 합쳐 울주 군립병원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공공병원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병상수와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조건의 타지역 공공의료시설을 직접 방문해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각종 어려움이나 주의점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속초의료원, 정선군립병원, 울진군의료원, 삼척의료원을 방문했으며,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군은 오는 12월 군립병원 설립 추진방식과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인준 기자

울주군, 4년간 일자리 2만5천개 만든다

울산시 울주군 민선8기가 향후 4년간 연평균 6천250명씩 총 2만5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 60.5%를 달성할 계획이다. 앞선 민선7와 달라진 점은 정부 일자리 직접 창출보다 민간 일자리 창출 분야에 집중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2일 울주군은 군청 비둘기호에서 2023~2026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순걸 울주군수 주재로 울주군 일자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군 일자리 현황과 분석, 향후 과제 등이 제시됐다.

주요 내용은 △울주군의 일자리 환경 조사 및 분석 △정부의 일자리정책 방향 분석 △우수 일자리정책 사업 사례 분석과 시사점 △울주군의 일자리사업 평가 및 사업간 기본전략 연계성과 분석 △부문의별 중점과제 발굴 등이다.

이 계획은 울산연구원이 지난 8월부터 연구역을 실시 중으로 이달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울주군은 2026년까지 2만5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연평균 일자리 창출은 6천250명으로 2020년까지 고용률 60.5%

정부-민간부문 연평균 6천250명... 고용률 60.5% 목표
"기업유치·투자 유인해 안정·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울산 울주군이 2일 청사 8층 비둘기호에서 '울주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순걸 군수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달성이 목표다.

일자리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별로 계획됐다. 정부부문은 공공분야 직접 창출과 지원정책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중간보고에서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별 일자리 창출 비율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서 민간부

문 창출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정부부문 일자리 창출은 공공분야에 재정을 직접 투입하기 때문에 이를 성과로 연결하기가 쉽다.

실제 지난해 기준 울주군의 일자리는 정부부문이 94.9%, 민간부문 5.1% 비율을 보였다. 앞선 민선7기 일자리 계획

전체에서도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민선8기 일자리 계획은 정부부문 창출을 가져 가면서 민간부문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생산-고용 선순환 강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구축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 강화가 제시됐다.

기업유치 좋은 여건을 조성해 기업유치와 기업투자를 유인해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추진전략과 함께 부문별 사업(2)으로 △직접 일자리 창출 4개 △직접능력 개발훈련 4개 △고용서비스 4개 △고용장려금 6개 △창업 3개 △일자리 인프라 구축 11개 △기타(울주군립병원 건설 등) 9개가 제시됐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하는 새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우리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개발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기존의 단적이고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방식의 공공일자리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안정적인이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경상일보사와 울주군체육회, 울산산악자전거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제14회 영남알프스 전국MTB챌린지가 20일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일원에서 열렸다. 복합웰컴센터 광장에서 참가자들이 신호에 맞춰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MTB 동호인 1천여명 영남알프스 단풍속 내달렸다

**본보 '전국 MTB챌린지' 성료
완주목적 4시간 자유 라이딩
울자연·김해올래 최다 참가상**

전국에서 모인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영남 알프스의 수려한 단풍을 만끽하며 가을을 즐겼다.

20일 울산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일원에서 제14회 영남 알프스 전국 MTB 챌린지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 관련기사 13면

본보와 울주군체육회, 울산산악자전거연합회가 주최·주관했고 울주군과 울주군의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울산을 비롯한 전국 산악자전거 동호인 약 1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개회식은 내빈소개, 개회선언, 국민의례, 감사패 전달, 대회사, 환영사, 축사, 주의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대회는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광장·사슴목장 입구·배내재·석남사·소야정교·삼거리·길천초교·아하브마을·온천교를 거쳐 출발지로 돌아오는 32.1km, 약 4시간 소요 코스에서 완주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 라이딩으로 실시됐다.

최다 참가상은 울자연, 김해올래 MTB 팀으로 각각 상금 50만원을 받았다. 차순위상은 현대자동차 MTB, 동네한바퀴팀이 각각 상금 30만원을 받

았다.

엄주호 본보 사장은 "전국에서 참가하신 MTB 동호인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해 14회를 맞는 본 대회에서 영남 알프스의 단풍을 만끽하면서 안전에 유의하며 완주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알프스 전국 MTB 챌린지는 영남알프스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마련돼 올해로 14번째 대회를 치렀다. 가자산과 신불산 등 1000m급 7개 산봉우리로 이어진 영남알프스의 절경을 만끽하며 달리는 코스로 구성돼 전국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울주군, 재난관리평가 우수 행안장관 표창

자연재난 대비 실태 등 호평
재정인센티브 500만원 받아

울산시 울주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335개(중앙부처 29, 시도 17, 시군구 226, 공공기관 63)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개선하고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매년 평가를 진행한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재난관리기금 관리 실적 △소관분야 유형별 저감활동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 △재해구호 인프라 확보 및 관리 실적 △재해구호분야 훈련 실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



울산시 울주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한 가운데 이순걸 울주군수와 박공열 안전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24일 군청 군수실에서 표창 전달식을 가졌다.

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재정인센티브로 포상금 5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생활 속 재난위험요소부터 자연재난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UNIST 리더십센터는 경영관(114동)에서 '울주 A.I. 4.0 Studio' 결과발표회를 가졌다.

울주군 고등학생 인공지능 배움터 성료

UNIST, 36명 참여 6개월간 AI 배경지식 습득·실습 통한 결과물 만드는 과정 등 배워

UNIST는 지난 6개월간 울주군 고등학생들과 함께 한 인공지능(AI)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울주 A.I. 4.0 Studio'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울주군 소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UNIST 재학생 멘토들이 인공지능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울주군이 주최하고, UNIST가 주관해 지난 5월에 참가자를 모집해 6개월간 진행됐다.

프로그램에는 총 36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이들은 24명의 UNIST 재학생과 함께 총 12개 팀을 구성했다. 10개 팀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제한됐

던 지난해에 비해 규모도 커졌다.

고교생 3명과 UNIST 멘토 2명으로 구성된 각 팀은 인공지능에 대한 배경지식을 습득하고, 실습을 통해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배웠다. 12개 팀들은 데이터 분석 처리,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 챗봇, Style Transfer 등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도 수행했다.

인공지능을 전공하는 멘토와 진로를 희망하는 고교생들은 매월 한차례 공식 모임과 자율실습을 진행했다. 멘토의 상황으로 온라인 위주로 진행됐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돼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가자 간에 유대감을 다졌다.

장부찬 리더십센터장은 "A.I. 4.0 Studio는 이제는 인공지능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에서 앞으로 자라날 미래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다"며 "인공지능 분야 국내 최고의 교수진과 학생들이 모여 있는 UNIST는 앞으로도 울주군과 협력해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UNIST 리더십센터는 지난 26일 '울주 A.I. 4.0 Studio' 결과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 결과발표회에서는 UNIST 정보전략팀과 인공지능대학원 박사과정생들이 심사를 맡아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참여 학생들은 발표 후 수료증을 전달 받았다.

정인준 기자

간절곶 야간경관 전시 '빛과 바람의 정원'

울주문화재단, 내년 1월10일까지
3년만에 재개된 해맞이행사 연계
일몰 이후 다양한 즐길거리 마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모티브로
다양한 LED 조명·조각작품 소개



한반도에서 맨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해맞이 명소 간절곶에서 빛을 테마로 야간 경관조명과 조각 작품이 어우러진 전시가 열리고 있다.

울주문화재단은 내년 1월10일까지 간절곶 일원에서 야간경관 전시 '빛과 바람의 정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3년 만에 재개되는 해맞이 행사와 연계해 간절곶이 일출 명소뿐만 아니라 일몰 이후에도 다양한 즐길거리로 관광 명소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련했다.

이번 전시는 영국 동화작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간절곶 풍자 공원 주변을 △시계 토끼 오르골 △여왕의 정원 △시계 터널 △모자 장수의 정원 △시계 토끼의 정원 등 5개 테마로 조성했다. 우연히 마주친 시계 토끼에 이끌려 토끼굴로 따라가게 된 동화 주인공의 이야기처럼 시계 토끼와 함께 코로나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의 의미를 담아 전시를 구성했다.

여왕의 정원에서는 반짝이는 나무와 빛을 뿜어내는 돌, 버려진 고원을 활용한 정크아트 작품으로 선보이는 동물 조각 작품이 관람객들을 만난다. 시계 터널은 화려하고 불규칙한 조명이 밝히는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모자 장수의 정원, 시계 토끼 정원은 간절곶의 풍채와 형형색색의 LED 조명이 장식하는 포토존으로 꾸며졌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올해 간절곶 조각 프로젝트에 선정된 우수작가 4명의 '어느 멋진 날의 오후'와 최일호 작가의 '조각가의 친구들' 등 조각 작품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울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새해 간절곶 해맞이 행사를 맞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경관 전시를 열고 있다. 울산이 해맞이 명소를 넘어 여행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형배 기자



울주문화재단은 내년 1월10일까지 간절곶 일원에서 야간경관 전시 '빛과 바람의 정원'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빛과 바람의 정원 전시전경.

"디지털 농업 대전환... 안전한 먹거리·일자리 창출 앞장"

'2022 울주 스마트팜 네트워크 포럼'
특강·기업 상담회·제품 전시 등 다채

울산 울주군이 추진 중인 다양한 스마트팜 정책과 성과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2022 울주 스마트팜 네트워크 포럼'이 지난 9일 군청 문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군이 주최하고, 울산테크노파크(원장 권수용)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김재수)이 공동 주관했다.

신성장 산업인 스마트팜으로 혁신하는 울주를 알리고, 지역 스마트팜 기업과 농가 네트워킹 및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해 울주 스마트팜 산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군은 2020년부터 '스마트팜 보급 확산사업'을 추진해 스마트팜 창업 농가 15곳을 배출했으며 △기술 개발 △마케팅 △콜라보 제품 개발 △인허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스마트팜 산업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울주형 스마트팜 관련 사업과 스마트팜 분과위원회, 지식연



울산 울주군이 추진 중인 다양한 스마트팜 정책과 성과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2022 울주 스마트팜 네트워크 포럼'이 지난 9일 군청 문수홀에서 개최됐다.

울주군 제공

구회 등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플랫폼네트워킹 송봉만 대표가 '투자자가 가능한 스마트팜 기업 빌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지역 스마트팜 기업 4곳이 △지역스마트팜 협동조합 설립 △스마트팜 에너지 플랫폼 구축 △신재생 에너지 연계 스마트팜 △스마트팜 청년 창업 성장 등을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스마트팜 교육 및 지원사업에 대한 메이커스전문팀 소개와 스마트팜 기업의 상담회가 마련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행사장에는 스마트팜 창업 농가의 설비 및 콜라보 제품, 연구개발 성과 등 다채로운 전시가 진행돼 이목을 끌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번 울주 스마트팜 네트워크 포럼으로 농가와 기업 그리고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하고, 디지털 농업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와 선순환 일자리 창출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규재 기자 gjae@ulkyung.kr

울주군, 임신부·난임부부 교통비 최대 100만원 지원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 군의회 통과

울산 울주군이 2023년 1월 1일부터 지역 임신부와 난임부부 진료비를 위한 교통비(최대 100만원)를 지급한다.

이번 지원 규모는 전국 지자체 중 최대 수준이며 예산 6억3,000만원을 들여 전액 군비로 추진한다. 교통약자인 임신부와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 타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와 난임 시술 여성이다.

임산부는 임신 16주부터 분만일까지, 난임부부는 난임 시술 시작부터 종료일까지 관련 진료건에 대해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교통비는 진료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진료 1회당 10만원, 최대 10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지급 기준이 신청일에서 진료일로 바뀌면서 올해 진료를 보고 내년에 신청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회당 5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군은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진료를 위해 교통비를 지원했으며, 그동안 임신부와 난임부부 모두에게 진료당 교통비 5만원씩 최대 50만원을 지급했다.

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임신부·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을 2배로 확대했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와 난임부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은 대상자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이번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금 확대를 비롯해 임신·출산·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보건소가 가족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규재 기자 gjae@ulkyung.kr

‘29억 실탄 확보’ UMFF, 2023년 ‘울산’ 달고 세계로

市 10억·郡 19억 등 예산 의회 통과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9부능선’
내달 집행위원장 선임 마무리 계획
2월 총회서 명칭 등 정관 변경 매듭

울산시와 울주군의 내년 예산 확정으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UMFF)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공적인 집행위원장 선출과 명칭 등 정관의 내용이 변경되면 UMFF가 태화강을 품고 울주의 영화제에서 울산의 영화제로, 울산의 가을을 수놓게 된다.

UMFF는 울주군이 2015년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 7회째를 맞았다. 영화제에는 등산 마니아를 중심으로 매년 4만~5만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28일 UMFF 사무국 등에 따르면 울산시 10억원, 울주군 19억원 등 내년 UMFF 관련 예산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칭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공동 개최가 9부능선을 넘어서게 됐다.

울산시와 울주군의 UMFF 공동개최는 이순걸 울주군수가 공약사항으로 제1회 울산관광 활성과 방안인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승격을 제안했고, 김두겸 울산시장도 이를 받아들여 공식화되고 있다.

과거에도 울산산악영화제의 공동개최 방안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타진됐으나



울산시와 울주군의 내년 예산을 확보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UMFF)가 대도약 준비와 함께 가칭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공동개최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사진은 올해 열린 제7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오프닝 영상 행사 모습. 울산매일 보도팀

한번은 울주군이 또 한번은 울산시가 거부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내년 2월 새 사업계획 구체화 전망

‘울산산악영화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세계속 한국의 산악영화제로 육성하자는 김두겸 시장과 이순걸 군수가 의견의 일치를 보면서 공동개최 ‘초임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24억원 수준이던 영화제 예산도 울산시가 재정지원에 나서면서 5억원가량이

늘어났다.

국내 유일 산악영화제인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UMFF)는 울산시, 울주군 공동개최는 사단법인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사무국의 정관 변경까지 거쳐야 완료된다. 내년 2월에 열린 예정인 정기총회에서 공동개최를 명문화한 안건이 상정되고 이의 추진이 이뤄져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칭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이 언급되고는 있으나 어떤 명칭이 총회의

안건으로 오를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사무국의 설명이다.

타 축제와 시너지 위해 10월 개최 유력

다만 울산이나 울주나 영문명칭에 ‘U’가 들어가 있어 영화제의 영문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은 줄여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무렵 ‘컨텐츠포럼’가 예상되는 영화제의 새로운 사업계획도 구체화 될 전망이다.

그동안 영남알프스북해협센터로 한

정했던 장소의 제약이 태화강 국가정원 등 울산시 전제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홍영주 UMFF사무국장은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을 고민중이다”며 “가을 축제 등과 어떻게 연결짓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초순 사임한 UMFF 집행위원장의 공석 문제는 내년 1월께 매워질 전망이다. 집행위원장 선출위원회가 지난 26일까지 새로운 집행위원장이 될 인사에 대한 공개 추천을 받는 등 선정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집행위원장 선출위원회는 1월 초 예정돼 있다. 우선 집콕대상이거나 나오면 선정위가 대상자 접촉에 나서고 이를 받아들이면 공식화되는 수순을 거쳐 결정된다.

사무국은 우선순위 협상자가 나오면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총회에서 집행위원장 선임과 사업계획안 추진, 정관변경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당초 내년 4월 예정이던 영화제는 10월께로 개최시기가 바뀌는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가을 시즌 울산지역의 다른 축제들과 함께 열어 시너지를 발휘하겠다는 게 사무국의 방침이다.

홍 사무국장은 “영남 알프스를 더 많이 알리는 것이 영화제를 키울 수 있는 방법론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이 기자 h25@iusm.co.kr